

석사학위논문

지역축제의 특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도 탐라문화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f Ways to Improve the  
Success of Local Festivals**

- Focusing on the Tamna Cultural Festival of the  
Jeju Island -

제 출 자 : 김 석 범

지도교수 : 정 진 현

2004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전공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지역축제의 특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도 탐라문화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f Ways to Improve the  
Success of Local Festivals**

- Focusing on the Tamna Cultural Festival of the  
Jeju Island -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4. 6.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전공

김 석 범

김석범의 석사학위 논문을  
합격으로 판정함

심사일 : 2004. . . .

심 사 위 원 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국문요약)

## 지역축제의 특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도 탐라문화제를 중심으로 -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 김 석 범

지도교수 : 정 진 현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문화정체성이 담긴 지역문화를 창출해내는 일은 전적으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진 과제였으며, 이런 연유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세계적인 문화적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위해 지역축제와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선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90년대에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아래, 지역이미지 제고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이유로 지역축제를 경쟁적으로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다면 양산된 지역축제가 모두 본래의 취지대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과연 만족할만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하는 의문을 해소하는 작업은 상당히 매력적인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부상하는 제주도는 제주만의 고유한 풍속과 역사성, 문화적 유산을 활용한 성공적인 지역축제 육성방안은 제주도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임이 분명하다.

탐라문화제는 1962년부터 개최되어 오랜 역사와 규모면에서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이다. 초창기에는 전국적인 명성이 있었으나 타 지역축제와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비판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탐라문화제가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특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탐라문화제 집행위원회의 자체평가와 탐라문화제 방문객의 만족도 조사결과, 그리고 진행요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탐라문화제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축제 조직의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탐라문화제 집행위원회의 참여기관 확대 및 실질적인 지원체제 구축, 축제의 모든 실무를 전담하는 실무집행기관의 전문적인 인력 확보,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진행요원의 안정적인 확보,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둘째, 홍보 강화 및 대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는, 탐라문화제의 차별화를 적극 부각시키는 다양하고 공격적인 홍보 전략의 강화 방안으로 제주지역의 기업체 및 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메세나형 협찬 도입, 외국어권별 세부프로그램 안내서를 겸한 통합홍보 리플렛을 비롯한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배부, 주한 외국대사관과 한국관광공사 등 외국에 축제를 알릴 수 있는 다각적인 채널 이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간접적인 홍보 효과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탐라문화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상징 프로그램 개발방안으로는 탐라국의 역사적 소재 등 탐라문화제의 테마를 대규모의 퍼레이드화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주변적 대표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재정 확충과 자립도 향상은, 제주지역의 기업체 및 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메세나형 협찬방안을 도입하여 자체자금의 수입을 극대화하고, 행정기관의 대폭적인 재정 지원 및 축제기금 조성, 탐라문화제와 같은 지역특성화사업인 지역축제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제도개선을 제시하였다. 특히 축제기금의 조성을 위해 제주도가 거둬들이는 복권판매수입을 축제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탐라문화제 추진조직의 구조적 효율성 제고, 홍보 강화, 대표 프로그램 개발, 재정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지역 축제로서의 특성화를 이룰 것이다.

# 목 차

국 문 요 약 .....	i
<b>제 1 장 서론</b> .....	1
제 1 절 문제제기 .....	2
제 2 절 연구목적 .....	5
<b>제 2 장 탐라문화제 현황과 평가</b> .....	7
제 1 절 탐라문화제 기본개요 .....	7
1. 개최배경 및 현황 .....	7
2. 추진조직 .....	10
3. 주요행사 .....	11
제 2 절 탐라문화제 평가 .....	13
1. 2003년 제42회 탐라문화제 평가 .....	13
2. 평가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	16
<b>제 3 장 국내외 지역축제 현황 : 사례를 중심으로</b> .....	18

제 1 절 한국의 지역축제 현황	18
제 2 절 국내외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	21
1. 이천도자기축제	21
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6
3. 영국 에딘버러 군악대축제 및 프린지축제	31
4.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	34
5. 일본 하카다 기온야마카사(博多祇園山笠)	36
제 3 절 평가를 통한 성공요인 분석	38
<b>제 4 장 탐라문화제에 대한 연구문제</b>	<b>40</b>
제 1 절 연구문제	40
제 2 절 연구방법	41
1. 분석대상	41
2. 분석방법	43
<b>제 5 장 연구결과</b>	<b>45</b>
제 1 절 탐라문화제에 대한 종합평가	45
1. 탐라문화제 방문객 만족도	45

2. 탐라문화제 진행요원 의견 .....	64
3. 탐라문화제 종합평가 .....	68
제 2 절 탐라문화제 특성화 방안 .....	69
1. 축제 조직의 구조적 효율성 제고 .....	69
2. 홍보 강화 및 대표 프로그램 개발 .....	73
3. 재정 확충과 자립도 향상 .....	77
<b>제 6 장 논의 및 결론</b> .....	<b>79</b>
제 1 절 논의 .....	79
제 2 절 결론 .....	82
제 3 절 연구의 제한 및 제언들 .....	84
<b>참고문헌</b> .....	<b>86</b>
<b>표 목 차</b> .....	<b>89</b>
<b>설 문 지</b> .....	<b>91</b>
<b>ABSTRACT</b> .....	<b>95</b>



## 제 1 장 서 론

모든 문화가 지역문화라고 했을 때 첫째는 지리적 범주로서 지역문화이며, 둘째는 사람들이 지역공동체로 더불어 살 때만이 지역문화가 형성되고 전승된다. 그렇기에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독창적 개성을 회복하려면 지역자치가 성숙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람들이 지역문화의 주체가 되어 문화 정책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sup>1)</sup>

특히 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문화정체성이 담긴 지역문화를 창출해내는 일은 전적으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진 과제였으며, 이런 연유로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세계적인 문화적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위해 지역축제와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선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90년대에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이런 성과에 집착하다보니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아래, 지역이미지 제고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이유로 지역축제를 경쟁적으로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축제뿐만 아니라 제주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도 대체적으로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적 차별성을 축제화하지 못한 채 천편일률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내에서 기획되어 개최되고 있는 축제들이 테마와 컨셉의 선정, 추진조직의 구성, 집행, 사후평가, 행정 및 재정 지원, 제도적 장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sup>2)</sup> 또한 대외적인 홍보 미비 및 관광객 유치 저조, 전문 인력 부족, 지역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부족, 축제에 대한 고정적인 투자미비 등은 제주지역의 모든 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

1) 임재해,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0, pp.239~241.

2) 송정일,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p.2.

## 제 1 절 문제제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를 선호하게 된 것은 축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효과로부터 찾을 수 있다.

축제는 한 지역의 역사, 사회, 문화가 녹아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사회적 기능, 종교적 기능, 예술적 기능, 윤리적 기능, 정치적 기능, 오락적 기능, 생산적 기능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작용하는 것이다.

송정일<sup>3)</sup>은 전통축제의 기능을 사회적 기능, 전통문화의 보존 기능, 생산적 기능, 종교적 기능으로 나누면서 첫째, 축제는 참가자들이 상하 신분을 잊고 서로 어울리다 보면 화합하고 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둘째, 축제는 정례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각종의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전통문화의 보존 기능을 수행하며, 셋째는 축제가 일상과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탈 일상의 행위인 만큼 참가자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기쁨을 얻는 과정에서 이완의 극치를 맛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는 생산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넷째는 제의과정에서 나타나는 형식적인 종교적 측면 이외에도 축제를 구성하는 각각의 놀이에도 종교적 특성이 숨어 있는 종교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주근<sup>4)</sup>은 축제의 현대적 의미를, 강릉단오굿을 사례로 들면서, 첫째, 원초 제의성의 보존, 둘째, 향토민의 일체감, 셋째, 전통문화의 보존, 넷째, 경제적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적 의미로 구분하였다.

김명자<sup>5)</sup>는 축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세시풍속의 기능을 전통사회와 산업사회로 나누어 종교적 기능, 윤리적 기능, 정치적 기능, 예술적 기능, 오락적 기능, 생산적 기능을 들었다.

지역축제가 의도하는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병철<sup>6)</sup>은 지역축제를

3) 송정일, 「이벤트 플래닝」, 백산출판사, 2001, p.11

4) 장주근, 「향토축제의 현대적 의미, 향토축제의 새로운 검증」,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82, pp.30~33.

5) 김명자, "세시풍속의 기능과 그 변화", 「민속연구」 제2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pp.233~255

6) 김병철, 「강원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1998, p.56

준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유대 강화와 공동체 의식은 응집력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발전의 동기가 되는 사회적 효과, 지역문화의 저변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간·국가간 상호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여 문화 교류의 활성화 등을 이루는 문화적 효과, 지역축제는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지역경제적 효과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외에도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문화적 측면보다 경제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이장주<sup>7)</sup>는 경고를 하고 있으며, 김철원·이석호<sup>8)</sup>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와 나아가 축제로 인한 부정적 효과도 지적하고 있다.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이처럼 다양한 기능과 효과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실제로 지역축제들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천도자기축제가 2001년에 147억원의 매출액을 거두었으며, 영국의 에딘버러시가 인구 45만명에 불과한 도시이면서 축제로 연간 1,2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독일의 뮌헨 맥주축제는 경제적 효과가 1조원에 달하는 성과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축제를 관광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역에서의 축제와 특별 이벤트들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으며 생활양식 문화이벤트는 관광객들이 목적지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sup>9)</sup>

관광객이 축제를 중심으로 목적지를 선택하는 것은 축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는 다른 그 도시의 문화, 역사, 오락 또는 사회적 경험을 모두 담고 있고 지역의 사회와 교육적인 특색들을 압축적으로 잘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sup>10)</sup>

7) 이장주, "지역축제의 이미지 측정척도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7, p.13

8) 김철원·이석호,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2, pp.14~15

9) Hughes, H.L. "Urban Tourism and the Performing Arts" in *Quality Management in Urban Tourism*, Wiley, Toronto, 1997, pp.103~113

10) 김혜옥, "지역축제의 참여자와 만족도", 「Arts Management Forum」 Vol. 1, No. 1, 한국예술경영연구학회, 2001, p.98

1975년 이미 Newsweek지에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 24곳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던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섬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고유의 풍속과 역사성, 문화적 유산이 풍부한 곳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독특한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인책으로서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적극성을 보이며 선진관광의 행태를 도입하고자 발 빠르게 적응하고 앞서나가는 상황에서 21세기 동북아 중심 관광지임을 자부하는 제주도는 매력적인 관광목적지가 되기 위한 축제상품을 개발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sup>11)</sup>

더욱이 연간 45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상황에서 제주만의 고유한 풍속과 역사성, 문화적 유산을 활용한 성공적인 지역축제 육성방안은 제주도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임이 분명하다.

제주에서는 2004년에만 47개의 축제가 행해지거나 개최될 계획이다.<sup>12)</sup> 제주도가 분류한 종류별 축제는 관광축제 19개, 문화축제 14개, 레저축제 8개, 특산물축제 5개, 과학축제 1개 등이며, 행정구역에 준한 지역별 축제로 구분하면 제주도 7개, 제주시 9개, 서귀포시 18개, 북제주군 5개, 남제주군 8개다.

이는 매 달마다 약 4개의 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축제마다 짧게는 하루부터 길게는 일주일이상의 기간을 잡고 있어 일 년 내내 축제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적인 관광도시인 제주도로서는 관광자원화의 명분이라면 일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축제가 열리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지만 축제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취지를 비롯하여 그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

11) 송정일,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p.1.

12) 제주도, 「2004 문화예술현황」, 2004, p.59

## 제 2 절 연구목적

제주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는 1962년부터 시작된 탐라문화제<sup>13)</sup>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제주도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어 규모 면에서도 가장 큰,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축제이다.

탐라문화제는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3대 문화제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명성이 있었으나 테마 선정, 행사장 선정, 추진 조직의 전문성, 예산 등의 문제로 타 지역축제와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비판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주최기관인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는 2000년부터 실시한 몇 차례의 향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의 한라문화제에서 2002년부터 탐라문화제라는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고 테마를 고정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탐라문화제로 명칭을 개칭하는 과정에 있었던 2001부터 2002년 사이의 평가들을 살펴보면 정인수<sup>14)</sup>는 2001년 제40회 한라문화제는 한마디로 성공적이었다는 세간의 평가를 언급하면서도 상징행사의 개발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시급한 과제로 들고 있다.

한편 언론의 평가를 보면 도내 4개 시·군 주민들이 참여해 매년 걸궁 및 민속 예술 경연을 벌이고 있지만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제주민속예술 축제의 활성화와 음식냄새로 뒤덮이는 행사장내 장터 운영의 획기적인 변화를 과제<sup>15)</sup>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02년에 개최된 제41회 탐라문화제의 평가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텅 빈 관람석, 쓸렁한 축제장의 분위기는 특색있는 전통문화를 선보이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sup>16)</sup>를 비롯하여 철저한 홍보활동 및 적절한 행사 운영과 효율화, 관객 유치 전략 강화 등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sup>17)</sup>로 남아있다.

13)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제주예술제, 1965년부터 2001년까지 한라문화제, 2002년부터 탐라문화제로 명칭이 개칭되어 개최되고 있다.

14) 정인수, "제40회 한라문화제의 성과와 발전방향", 2001 제주지역문화예술세미나, 한국예총제주도지회, 2001, pp.33~38

15) 한라일보, 2001. 10. 14일자

16) 제주일보, 2002. 10. 15일자

17) 제민일보, 2002. 10. 10일자

축제 평가에 대한 접근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축제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효과를 근거로 평가되어지기도 하며 평가주체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분석될 수도 있다. 실제로 경제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되어 오히려 축제의 방향을 그릇되게 몰아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축제의 개최동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역만의 독창적인 정체성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내의 지역축제 중 가장 오래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탐라문화제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주요 분석대상인 탐라문화제의 개최배경 및 현황, 추진조직 및 주요 행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주최기관인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의 2003년도 제42회 탐라문화제 자체평가를 살펴봄으로써 탐라문화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탐라문화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차적인 접근으로 국내외의 성공적인 지역축제 중에서 탐라문화제의 문제점과 영역별 공통요인을 찾아내어 성공적인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주요 분석대상인 탐라문화제에 대한 방문객의 만족도 조사결과와 축제에 참가한 진행요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점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탐라문화제가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특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장 탐라문화제 현황과 평가

### 제 1 절 탐라문화제 기본개요

#### 1. 개최배경 및 현황

1962년 한국예총 제주도지부의 발족과 동시에 제주도 특유의 지방예술문화의 계발과 향상을 목표로 종합예술제를 개최한 것이 현재 탐라문화제의 전신이다.

한국예총제주도지부의 양중해 초대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sup>18)</sup>

□□「예총 제주도지부」는 1962년 4월 29일 발족과 동시에 제주도 특유의 지방예술문화의 계발과 향상을 목표로 종합예술제를 개최하였으니 이것이 1962년 5월에 거행된 제1회 제주예술제, 이제 금년으로서 제27회를 산하는 한라문화제의 창시였던 것이다. 이때는 아직 그 행사 예산이 제주도 당국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그 전 예산은 가난한 이 지방 예술문화인의 호주머니 돈이거나 구걸 예산에 의한 행사였다.

당시의 제주예술제는 순수한 예술분야의 행사였고 참여한 사람들도 예술문화인들뿐이었기에 대회장도 예총 도지부장이었고, 도지사는 고문으로 모셨음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제주예술인들만이 중심이 되어 예술분야의 행사로 치러진 제주예술제는 제1회의 행사를 1962년 5월에 치룬데 이어, 1963년 10월의 제2회, 1964년 12월의 제3회, 이렇게 치루는 동안 예술문화인들 스스로 지금까지 치러 온 예술제를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예술인들만이 고독한 행사로 치룰 것이 아니라 보다 널리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종목에서부터 행사 규모에 이르기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곧 도행정 당국의 공감을 쉬이 얻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시화전, 문학의 밤, 문학백일장, 음악경연, 미협전, 사생대회, 연극제 등 순수 예술분야의 단조로움을 지양하여 민요경창, 선박퍼레이드, 걸궁경연 등 예술분야만이 아닌 도민의 축제행사로 확대시켜 나갔으니 그 행사종목도 40종

18) 양중해, 「제주문화예술백서」, 한국예총제주도지회, 1998, pp.45~47

목 내지는 50종목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확대된 계획을 마련하고 보니 이제는 행사 이름도 「제주예술제」로는 알맞지 못함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행사 명칭을 모색하게 되었다. 「예총」 안에서는 이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되풀이 하다가 오늘의 그 이름 「한라문화제」로 확정된 것이다. 이 대회 명칭 확정 과정에서 필자는 「탐라문화제」란 명칭에 호감을 느꼈던 것이나 많은 사람이 「한라문화제」가 좋다는 의견이어서 나도 그에 따라버렸던 것이나, 처음 「한라문화제」라 하고 보니, 무슨 산악제 명칭과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나로서는 제주도의 옛 이름인 「탐라」를 따다가 「탐라문화제」라 하는 것이 전통성도 살릴 수 있고 좋았다 싶었지만, 「한라문화제」의 이름으로도 이만큼 치루어 오다 보니, 이젠 「한라문화제」란 그 명칭에도 생소함이 없고, 오히려 친근감마저 든다.

「예총 제주도지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치러 오던 제주예술제의 규모와 행사종목을 확대하고 보니, 이젠 「예총」의 힘만으로는 벅찬 행사가 되어버렸다. 종목 자체가 예술행사만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주민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라문화제의 대회장은 제주도지사, 그 집행위원장은 예총 도지부장이 맡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이르러 행사 경비도 도예산에 미리 계상되게 되었으니, 초창기의 제주예술제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의 느낌이 든다.□□

초창기의 탐라문화제가 제주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관심과 비중이 있었음을 당시의 언론보도를 통해 상황을 엿볼 수 있다.

1965년에 제4회 한라문화제의 개막식이 열렸던 11월 27일자, 제주신문을 인용하면 “어제 저녁까지 차갑게 휘몰아치던 북풍도 멎은 27일 한라의 품속에서는 역사적인 제4회 한라문화제가 상오 10시, 시민회관에서 이효상 국회의장, 손재향 예총회장, 현오봉 국회의원, 강우준 도지사를 비롯 남녀학생 등 2천여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서제를 거행함으로써 7일간의 잔치, 그 첫 막이 올려졌다. 전국 방송리에 10시 정각 국민의례에 이어 --- (중략) --- ① 홍종언 대회장의 개회사 ② 「남해문화중흥의 계기로 삼으라」는 요지의 박대통령 치사(강지사 대독)가 있었다.”로 기사화되고 있으며, 동년 11월 29일자, 제주신문에는 제4회 한라문화제의 대중적인 인기 종목인 「겉궁놀이」 경연을 소개하면서 “이날 공설운동장에 집결, 제너중고민



속무용단을 선두로 동문로타리를 거쳐 경연장으로 들어오는 사이 연도에는 헤아릴 수 없는 인파가 들끓었고 관덕정 광장으로 입장이 끝났을 때 본도 사상 초유의 2만이라는 인파가 휩쓸었다. 행사진행을 위해 차량교통을 차단하고 시내 대다수의 경찰관이 교통정리를 하는 가운데 5개팀의 본격적인 경연이 벌어졌을 때는 관덕정 광장 주변에는 인산인해 - 거리를 휩쓴 인파가 넘쳐 경찰서·전신전화국·우체국 등 2층 옥상과 베란다, 그리고 곳곳의 지붕에 까지 관중들로 덮였다.”로 기사화하고 있다.

군사정권 초기의 상황이지만 당시 한라문화제의 개막식에 대통령의 치사가 낭독되고 국회의장이 내도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중앙정부차원의 관심이 지대하였으며, 제주도민에게는 전 도민의 잔치로 펼쳐지던 최대의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지자체 시행이후 지역축제가 전국적으로 양산되면서 제주지역내의 동네축제로 평가되는 부정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된 주제 및 테마의 차별성 확보, 주행사장 이전, 주제 프로그램의 선정 등의 노력에 힘입어 2002년부터 2년 연속 문화관광부의 지역특성화사업 지역축제로 선정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2년 제41회부터는 「한라문화제」에서 「탐라문화제」로 명칭을 개칭하여 2년째를 맞고 있다. 명칭을 개칭한다고 해서 축제가 전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가 향후 추구해야 할 방향은 제주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맞는 문화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경쟁력을 찾자는 데 있기에 제주역사의 원천인 탐라국 이래 창출된 역사와 문화, 예술을 축제의 주테마로 삼아 제주만의 축제를 펼치자는 뜻에서 「탐라문화제」로 개칭한 것이다.<sup>19)</sup>

---

19) 서정용, "제41회 탐라문화제 대회사", 한국예총제주도지회, 2002

## 2. 추진조직

1965년 제4회에 「한라문화제」로 바뀌면서 규모가 커지고 행정기관의 재정적,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면서 1973년 제12회 한라문화제부터는 제주도와 예총제주도지부가 함께 치르는 행사가 되었는데, 당시에는 대회장에 제주도지사, 집행위원장은 예총 제주도지부장이 맡는 체제로 추진되었다.

1992년 제31회부터는 학생부의 행사가 확대되면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예총이 공동주최로, 1995년부터는 예총의 독자적인 주최로 재편되면서 공동주최기관이던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후원기관으로 물러나게 되어 순수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현 체제를 취하게 되었다.

2003년에 개최된 제42회 탐라문화제의 축제조직은 대회장에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제주도연합회(이하 “제주예총”이라 함) 회장이 맡고, 제주예총 회장단 및 회원단체장, 제주도청 문화예술과장, 제주시 문화체육과장, 서귀포시 문화공보실장, 북제주군 문화공보과장, 남제주군 관광진흥과장,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 21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있다.

집행위원회 밑에 집전본부를 두고 있는데 제주예총 사무처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제주예총 사무처의 직원들이 전반적인 탐라문화제의 실무를 맡고 있다.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확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되며, 집전본부는 확정된 계획을 통제하고 집행하되, 각 행사별 프로그램의 진행은 길놀이축제, 개막축제, 전통문화축제, 무형문화재축제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관련 전문단체에 직접적인 주관을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책임운영으로 전반적인 축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축제의 현장업무를 지원하는 축제도우미를 전문적인 인력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축제진행을 위해 1998년부터 제주관광대학(관광컨벤션산업과)과 산학협동협약을 맺어 대학에서 이벤트 및 축제과목을 배우는 관련학과의 대학생들을 활용하고 있다.

### 3. 주요행사

1962년부터 시작된 탐라문화제는 순수예술제인 「제주예술제」로 열렸기에 현재의 축제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으며, 1965년 「한라문화제」로 개칭되기 전까지 3년간 순수예술제로 펼쳐져 시화전, 문학의 밤, 문학백일장, 음악경연, 미술전, 사생대회, 연극제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문화축제로 전환되면서 민요경창, 선박 퍼레이드, 걸궁 경연 등 종목에서부터 행사규모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으며 2002년까지 지속되어 왔다. 2002년 제41회부터는 「한라문화제」에서 「탐라문화제」로 명칭을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명칭을 개칭하기에 앞서 주제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주제를 선정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없이 개최되어 오다가 2000년 제39회 한라문화제에서 “새천년 탐라문화 세계를 여는 제주”라는 주제를 정하면서 제주의 최초 고대국가였던 탐라국 이래의 제주의 역사, 전통문화, 예술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선을 보이게 되었다. 이 해에 주제에 맞게 변화된 프로그램을 보면 「제주역사축제」라는 프로그램으로 “탐라의 얼을 찾아서 - 고대사 중심의 선사유적지 탐방, 봉화로 지킨 역사현장 - 고려·조선시대의 봉수 및 연대 중심의 탐방, 외침의 역사현장 - 일제시대의 전적지 탐방, 제주사 학술대회”를 신규로 개발하고, 시·군 민속예술축제와 학생 민속예술축제, 제주어말하기대회 등 기존의 프로그램을 「전통문화축제」로 통합하여 프로그램화하는 등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존 프로그램의 정비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2001년부터는 주제도 고정화하여 「천년의 탐라문화! 세계 속으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삼성신 탄생의 신화와 탐라국 개국의 역사적 사실, 섬이라는 제주가 지닌 지정학적 특수성에 의한 문화적 창출의 요인과 독창성 등을 중심으로 한 탐라문화제만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탐라문화제를 통해 제주도가 지닌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그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고 100만 제주도민의 한마당축제로 가꾸어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축제개최의 의지를 강력하게 담고 있다.

2003년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42회 탐라문화제의 테마별 축제 구성은 기원대축제와 본마당, 달는마당, 참여행사 등 4분야로 나뉘고 있으며 세부적인 구분은 <표 1> 과 같다.<sup>20)</sup>

<표 1> 제42회 탐라문화제 주요 프로그램

구분	축제명	주요행사
기원대축제	기원대축제	만덕제, 탐라문화제 서제, 문화의 길 축제, 예술의 길 축제
본 행사	개막축제	개막식, 테마프로그램 「천년왕국, 탐라의 아침」 공연
	전통문화축제	학생민속예술축제, 시·군 민속예술축제, 제주어 말하기대회
	무형문화재축제	제주 무형문화재 축제, 전국 무형문화재 축제
	제주역사축제	신당탐방, 박물관 순례, 탐라선사인들의 생활 체험
	예술축제	공연예술축제(영화제, 연극제, 음악제, 무용제 등) 전시예술축제(미술전, 사진전, 탐라문화제자료전, 전국예총 6대 광역시 미술작가 초대전 등) 예술단 초청공연 (인도네시아, 제주도립예술단, 신나락풍물패 등)
달는 마당	민속예술축제 시상식	민속예술축제 시상식
	느영나영 한마당	느영나영 한마당
참여행사	마을축제	정의골 한마당축제, 덕수리 전통민속재현행사,
	자연·생태 탐방축제	전국한라산등반대회, 오름오름축제, 조랑말축제
	제주인대화합축제	장애인축제, 노인축제, 궁도대회, 씨름대회
	참여예술행사	전국사진촬영대회, 전국민요경창대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문학백일장, 등
	신토불이축제	농협한마당축제, 제주전통놀이마당
	제주향토음식축제	제주국제음식페스티벌, 향토음식점

자료 :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제42회 탐라문화제 세부추진계획, 2003,

20) 탐라문화제집행위원회, 「제42회 탐라문화제 세부추진계획」, 2003, pp.11~14

## 제 2 절 탐라문화제 평가

### 1. 2003년 제42회 탐라문화제 평가

출연진의 계층별 참여도는 전문적인 기능을 요구하는 무형문화재축제와 예술축제를 제외한 모든 행사가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직접적인 참여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라산등반대회, 오름(기생화산) 탐방을 비롯하여 신당탐방, 박물관 순례 등은 매년 참가자 신청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 초빙강사 설명의 한계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한정된 인원만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탐라문화제 행사 중 가장 대표적인 제주민속예술축제는 제주도내 4개 시·군이 참여하여 초등학교(풍물놀이), 중학교(민속가장), 고등학교(민속예술)의 학생부는 시연의 형태로, 걸궁(걸립, 乞粒)과 민속예술부문으로 나뉜 일반부는 각각 경연으로 펼쳐고 있다. 전체 출연진은 학생과 지역주민들로 1,500명에 이르고 있는데, 각 시·군을 대표하여 각 고장의 신화나 전설,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민속예술작품을 발굴하고 새롭게 연출하여 선보임으로써 우리의 문화에 대한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배운다는 취지에서 좋은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학생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는 학생들은 우리 고장에 대한 바로 알기와 문화적 체험의 기회로 삼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무형문화재축제와 예술축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제주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프로그램화되어 타 지역 축제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인기연예인 초청 축하쇼, 청소년댄스축제 등의 현대적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지양하고 있다.

언어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고어(古語)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제주는 훈민정음 반포 이후, 아래 아( . )를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차별성을 살려 제주어(濟州語) 말하기대회를 1992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4개 시·군 지역의 학생과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사라져가는 고어(古語)에 대한 보존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타 지역축제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은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제주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행정구역상 4개 시·군(2시, 2군)으로 나뉘어져 있기에 제주도전역을 축제행사장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지역별 축제구성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제주시지역은 민속예술축제, 서귀포시지역은 예술축제, 북제주군지역은 자연·생태탐방축제, 남제주군지역은 마을축제로 특장화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축제기간은 달리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는 주행사장으로 이용하는 제주시 신산공원과 민속예술축제가 열리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광장이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동선을 차단하고 있다. 낮에 자연사박물관 광장에서 시·군의 날 행사가 열릴 때에는 주 무대가 위치한 신산공원은 전시행사와 향토음식점은 개설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쓸렁한 분위기로 전락하여 공허감마저 들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적인 홍보가 부족하여 제주도내 지역축제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탐라문화제의 전국적인 홍보 수단은 한국관광공사에 의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도내에서의 홍보도 행사가 열리기 15일전부터 이루어지는 방송 광고 및 지역 신문사의 보도와 광고를 비롯하여 행사 일주일 전부터 공항과 부두에 비치되는 인쇄 홍보전단 외에는 별 다른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탐라문화제가 4개 부문, 13개 분야, 51개의 행사가 열리는 대규모의 축제이지만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축제의 주제 및 컨셉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다. 본행사인 전통문화축제, 무형문화재축제, 제주역사축제, 예술축제를 구성하는 단위별 프로그램 중에는 “탐라문화제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이천도자기축제의 “도자기”나 안동탈춤페스티벌의 “탈춤”처럼 강한 이미지의 연상화가 필요하지만 탐라문화제는 강력한 이미지의 연상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립작업은 필요하다.

넷째, 축제의 안내 및 해설기능의 서비스 부족이다. 탐라문화제에 대한 안내물이 전체적인 행사일정만 수록된 인쇄물전단에 의존하고 있어 외부에서 축제를 찾아온 방문객에게 선택의 기회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내 및 해설기능의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안내는 영어 번역만 이

루어지고 제주를 많이 찾는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섯째, 하드웨어적 기반시설의 미비 및 관람객 편의시설 부족이다. 주행사장인 제주시 신산공원은 당초 축제 행사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휴식 공간 개념으로 만들어졌기에 무대 설치 공간의 협소 및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이 빈약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축제 진행을 위한 기반시설이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축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편이며, 화장실이 1개소 증축되어 다소나마 해소는 되었지만 탐라문화제 규모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며, 상수도의 수압이 약하여 수세식 화장실과 음식점에 소요되는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매년 발굴되는 우수한 민속예술작품이 전혀 보존,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 탐라문화제 본행사인 전통문화축제의 민속예술축제에 출연되는 작품들은 4개 시·군의 학생과 일반 지역주민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소재를 가지고 민속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재연출하고 있는데, 탐라문화제가 끝나면 일회성에 머물러 우수 작품들에 대한 보존이나 재공연의 기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낭비적인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서 추진하는 '1마을 1민속예술작품'의 정책추진마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곱째, 예산상의 지원 부족이다.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3억5천만원(2003년도 기준, 제주도비 332,500천원, 국비 20,000천원)에 달하지만 규모가 크고 행사기간이 길다보니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단위별 예산은 열악한 편이다. 예를 들어 학생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는 고등학교 1개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약 400만원으로, 60~80명의 출연진으로 기준할 때, 1인당 약 6~7만원의 예산으로 의상, 세트제작, 차량 임차비, 식대 등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탐라문화제 출연하는 학교로서는 예산 확보가 가장 급선무일 정도이다.

## 2. 평가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탐라문화제의 프로그램들은 자체평가에서 거론한 한라산 등반대회, 신당탐방, 박물관순례, 제주어말하기대회 등은 소재나 내용적인 특성에 있어서 타 지역축제와의 차별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탐라문화제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제주민속예술축제는 제주도의 행정구역인 4개 시·군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일반 지역주민들이 각각 대규모로 참가하여 각 고장의 신화나 전설,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민속예술작품을 발굴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와 고장 바로알기, 문화적 체험의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타 지역축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기연예인 초청 축하쇼, 청소년댄스축제 등의 현대적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지양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주도 전역을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별 프로그램의 중복을 막기 위해 지역별 프로그램의 특장화도 유지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탐라문화제 집행위원회의 자체평가에서 지적하고 있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주행사장과 부대행사장의 연계성 부족에 의한 행사장의 구조적인 문제, 둘째, 대외적인 홍보 전략 부족, 셋째, 탐라문화제의 테마와 컨셉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부재, 넷째, 축제의 안내 및 해설기능의 서비스 부족, 다섯째, 하드웨어적 기반시설의 미비 및 관람객 편의시설 부족, 여섯째, 우수한 민속예술작품의 보존 및 계승 방안 미흡, 일곱째, 예산상의 지원 부족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끼리 정리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행사장이나 기반시설은 현재 탐라문화제 집행위원회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축제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되어지며, 관람객의 편의시설이나 축제의 안내 및 해설 기능을 보강하는 문제도 비록 예산이 함께 수반되어지는 문제이지만 축제조직에 소속된 실무집행기구와 축제진행요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해결될 수 있기에 축제조직의 제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외적인 홍보 전략은 신문, 방송 등 언론을 이용하거나 일정기간 앞두고 인쇄 홍보물 배부 및 시설홍보물 설치, 인터넷이나 PC 통신 등을 이용하는 기초적인 홍보방법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것이 좋지만 무엇보다도 예산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테마와 컨셉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은 탐라문화제가 지역축제로서의 특성화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탐라문화제 집행위원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변화의 모색으로 축제 테마를 고정화하고 참여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을 보여 그나마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탐라문화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특별하게 선정할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다.

예산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은 지역축제의 대부분이 재정지원을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비의 배정에 따라 성패의 굴곡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탐라문화제 문제점으로 지적된 우수 민속예술작품의 보존 및 계승은 아무리 좋은 작품을 발굴하더라도 이에 따른 전승보존비가 지원되지 못한다면 얼마가지 않아 작품은 사장될 것이다.

예산확보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지방비의 대폭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점차적으로 자체수입을 극대화해 나가는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비의 대표적인 지원확대는 축제를 통한 관광자원화와 관광수익의 극대화라는 당위성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자체수입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제주 지역내의 기업체나 정부투자기관의 협찬을 유도하고, 축제 캐릭터 및 기념품 판매 등 다각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종합적으로 정리된 탐라문화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지역축제 중에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되는 축제들을 몇 가지 선정하여 축제의 전반적인 접근보다 축제조직, 홍보전략, 대표프로그램, 예산확보 등에 대한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제 3 장 국내외 지역축제 현황 : 사례를 중심으로

#### 제 1 절 한국의 지역축제 현황

지역축제에 관심이 증대된 것은 1994년 '한국방문의 해'를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당시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전국에 걸쳐 360여개의 지역축제 가운데 10개를 선정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이것은 축제를 특성화한다는 점에서 각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입장에서는 최대의 관심이 아닐 수 없었다. 지역축제에 대한 관광자원화의 가치를 인식하는 전환점이었으며, 축제를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지역축제가 일 년간 전국에서 개최된 수는 1987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한국의 축제> 자료를 보면 361개에 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sup>21)</sup> 이렇게 많은 숫자의 축제가 개최된 것으로 파악된 것은 민속행사가 연회되는 '예술제', '문화제', '대회', '축제', '시민의 날', '경축행사' 등과 같은 행사를 모두 향토축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1995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은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를 제외한 전국의 <전국 문화축제>를 292개로 발표하였으며,<sup>22)</sup> 1996년, 문화체육부에서 조사한 지역축제 총수는 412개로 나타났다.<sup>23)</sup>

그러나 가장 최근 자료인 문화관광부의 2004년 1월 현재의 2004년도 시·도별 축제 개최 현황인 <표 2>에 따르면 549개로 공식적인 개최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4)</sup> 이 자료는 매년 또는 격년제로 일정기간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작성대상으로 삼아 조사된 것이다.

2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의 축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22) 이원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축제 운영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p10

23) 문화체육부, 「한국의 지역축제」, 1996, p116

24) 문화관광부, "한국의 지역축제", 2004

〈표 2〉 2004년도 시·도별 축제 개최 현황

시·도	축제수	시·도	축제수
서울특별시	32	강원도	74
부산광역시	44	충청북도	35
대구광역시	13	충청남도	41
인천광역시	11	전라북도	32
광주광역시	15	전라남도	41
대전광역시	8	경상북도	52
울산광역시	9	경상남도	68
경기도	59	제주도	15
		계	549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의 지역축제, 2004. 1월 현재

2004년 지역축제 개최 현황은 아직 개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1996년 조사 자료인 지역축제 총수 412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1996년 문화체육부에서 조사한 전국의 지역축제 412개를 대상으로, 〈표 3〉과 같이 무응답 13개를 제외한 399개 축제를 10년 단위로 축제 개최수를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는 대체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80년부터 1989년까지 10년 사이에 123개의 축제가 증가하였지만 1990년부터 1996년까지 7년 사이에 187개의 축제가 증가하여 1980년대의 증가수보다 더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sup>25)</sup> 특히 축제의 급격한 증가추세는 정치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1993년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축제를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1993년까지는 270개로 응답 축제 수 399개의 67.7%인 반면 1994년 이후 새로 개최된 축제는 32.3%인 129개로 나타나 지방자치제 실시 후의 지역축제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축제의 월별 개최시기는 〈표 4〉와 같이 개최시기를 응답하지 않은 4개의 축제사례를 제외한 408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시기를 분류해 보면, 10월에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46.3%로 전체 지역축제 중 가장 집중적인 시기에 개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5) 이강욱,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 효율화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1998. p.25

〈표 3〉 시대별 지역축제 증가 분포

시기 구분	빈도	유효백분율	누적 백분율
1년 ~ 1949년	7	1.7	1.7
1950 ~ 1959년	10	2.5	4.2
1960 ~ 1969년	33	8.3	12.5
1970 ~ 1979년	39	9.8	22.3
1980 ~ 1989년	123	30.8	53.1
1990 ~ 1996년	187	46.9	100.0
소 계	399	100.0	-
무응답	13	-	-
총 계	412	-	-

자료 : 문화체육부, 한국의 지역축제, 1996, p.122

〈표 4〉 개최월별 지역축제의 분포

시기 구분	빈도	유효백분율	누적백분율
1월	1	0.3	0.3
2월	20	4.9	5.2
3월	11	2.7	7.9
4월	46	11.3	19.2
5월	59	14.5	33.7
6월	12	2.9	36.6
7월	9	2.2	38.8
8월	12	2.9	41.7
9월	31	7.6	49.3
10월	189	46.3	95.6
11월	14	3.4	99.0
12월	0	0.0	99.0
부정기적	4	1.0	100.0
소 계	408	100.0	-
무응답	4	-	-
총 계	412	100.0	-

자료 : 문화체육부, 한국의 지역축제, 1996, p.125

## 제 2 절 국내외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

### 1. 이천도자기축제

이천도자기축제는 1987년 설봉문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으나 1995년 제9회부터 경기도 이천군과 이천문화원이 주최하던 것을 문화체육부(국제관광과)와 한국관광공사(행사처)가 가세하여 기존의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관광상품화함으로써 지방의 관광개발형 지역축제로 성공리에 치러, 높은 경제파급효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계기로 대표적인 성공 지역축제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천도자기축제의 사례로 통해 지역 특화산업의 축제화 배경, 축제추진조직의 전문적 분업화, 대표 프로그램과 주변성 프로그램의 연계, 외국인 주 타깃 프로그램 개발, 다각적인 홍보 전략, 체계적인 사전 기획의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 개최배경 및 현황

이천도자기축제가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축제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천 지역의 수광리 칠기가마의 존재가 계기를 마련한 이천도예촌의 형성 및 60~70년대의 일본인의 막강한 구매력과 70년대 중반 가스 가마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한 활성화로부터 기인하였다.

1981년 4월, 이천과 광주지역의 도예인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전승도예협회(韓國傳承陶藝協會)를 창립하였으며, 1987년 9월에는 설봉문화제(雪峰文化祭)의 간판 행사로 이천도자기축제(利川陶磁器祝祭)가 처음 선을 보였다. 195년에 도예산업의 육성과 이천도예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조합을 중심으로 각종 전시회 주관, 수출 및 판매 활동 주관, 유통구조 개선, 도예업체의 활성화 및 이천도예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으며 도자기 축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천도자기축제의 개최현황을 개최년도, 장소, 참가요장수, 관람객수, 외국인관람객수, 매출액 등으로 <표 5> 에서 정리하였다.<sup>26)</sup>

26) 이천시, "제17회 이천도자기축제 평가 보고서", 2003, p.20

〈표 5〉 이천도자기축제 개최현황

구분	기 간	장 소	참가 요장	관람객수 (외국인)	매출액	비 고
1	87. 9. 28 ~ 10.9(12일간)	설봉호텔 행사장	25	20,000명	2,000만원	설봉문화제
2	88. 9. 13 ~ 10.2(12일간)	이천민속 도예촌	22	50,000명	1,400만원	"
3	89. 9. 24 ~ 10.9(9일간)	중리천 복개지	20	100,000명	1,400만원	"
4	수해로 인한 행사 취소					
5	91. 10. 3 ~ 10.10(8일간)	온천광장	22	70,000명	2,800만원	설봉문화제
6	92. 10. 3 ~ 10.10(9일간)	"	21	80,000명	3,300만원	"
7	93. 10. 2 ~ 10.10(9일간)	"	21	80,000명	3,700만원	"
8	94. 10. 1 ~ 10.9(9일간)	"	28	100,000명	6,000만원	"
9	95. 9. 30 ~ 10.9(10일간)	"	54	230,000명 (18,000명)	5억6천만원	문체부 시범행사
10	96. 9. 7 ~ 9.22(16일간)	"	116	757,000명 (45,000명)	20억5천만원	전국8대 관광축제
11	97. 9. 26 ~ 10.5(10일간)	"	122	952,000명 (72,000명)	30억5백만원	전국10대 관광축제
12	98. 9. 18 ~ 9.27(10일간)	"	130	980,000명 (80,600명)	26억1천만원	문화관광부 집중지원 5대축제
13	99. 9. 8 ~ 9.19(12일간)	설봉산 및 도예촌일원	169	1,023,000명 (80,200명)	30억5백만원	문화관광부 집중지원 6대축제
14	2000.10.10 ~ 10.22(13일간)	"	138	905,000명 (63,300명)	25억3백만원	"
15	2001.8.10 ~ 10.28(80일간)	설봉공원 EXPO단지	184	3,065,007명 (209,999명)	147억원	2001세계도자기 엑스포
16	2002. 9. 6 ~ 9.29(24일간)	"	173	512,960명 (6,190명)	15억2백만원	
17	2003. 9. 1 ~ 10.30(60일간)	"	177	2,443,878명 (51,878명)	70억원	제2회세계도자 비엔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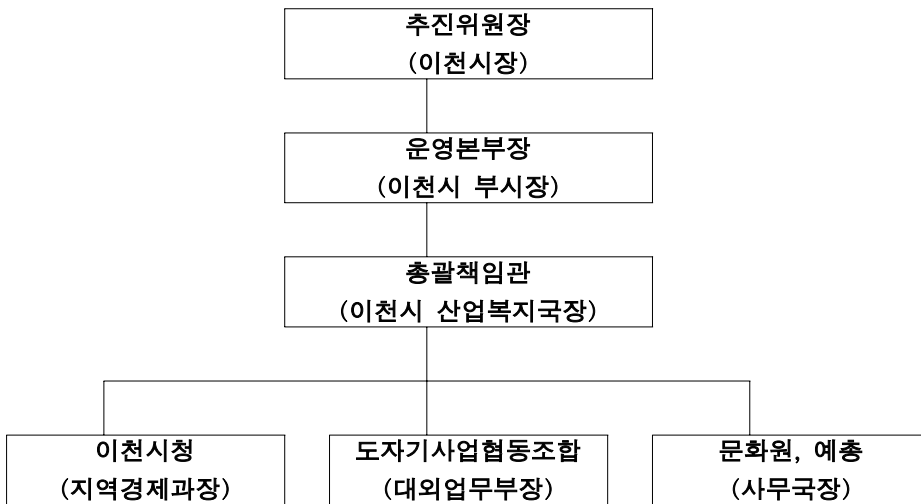
자료 : 이천시, 제17회 이천도자기축제 평가보고서, 2003, p.20

(2) 추진조직

축제 추진조직은 이천시장이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위원장을, 부시장이 운영본부장을, 이천시 산업복지국장이 총괄책임관을 맡아 전체적인 통제와 집행을 하는데 행정기관인 이천시청의 지역경제과장과 도자기사업협동조합의 대외업무부장, 이천문화원과 한국예총이천시지부의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실무집행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총괄기획은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가 맡으며, 도자관련 업무는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공연행사는 한국예총이천시지부, 문화행사는 이천문화원, 자원봉사요원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천시지부, 도자관련 경연대회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이 맡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의 분장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조직



자료 :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http://www.ceramic.or.kr>), 2004

### (3) 주요 행사

이천도자기축제는 공식행사, 전시행사, 참여행사, 공연행사, 기타행사, 테마공원, 이천세계도자센터 등으로 나누어 약 40여개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6〉 이천도자기축제 주요행사

구분	행사명
공식행사	전야제, 도자불씨봉송, 식전 식후 축하공연
전시행사	화기전, 전통굴뚝전, 전국도자기명장 작품전, 분재전, 도자기시화전, 학생작품전시전, 야생화전
참여행사	도예교실, 도자기제작과정, 클레이올림픽, 물레시연, 물레경연대회, 전통도예경연대회, 도자기 경매
공연행사	기획공연, 인기가수공연, 문화교류단체공연, 전국청소년가요제, 전국무용공쿨대회
기타행사	전통가마불지피기, 다도시연, 워크샵 페스티벌, 도자기백일장, 미술대회
테마공원	곰방대가마, 토야랜드, 웅기공원, 조각공원, 문학공원
이천세계도자센터	국제공모전, NOW&NOW, 국제도자학술회의, 국제도자워크샵

자료 :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http://www.ceramic.or.kr), 2004

### (4) 축제의 발전 요인 및 성과

이천도자기축제의 발전요인, 축제의 추진방향, 축제 성공요인, 축제의 발전과정,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의 개최성과를 정리하였다.<sup>27)</sup>

이천도자기축제의 발전 요인으로는 관광객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관광의 4대 욕구인 먹을거리·살거리·볼거리·즐길거리를 충족시키는 관광객과 함께하는 축제, 도자기의 전시·판매뿐만 아니라 특산물의 홍보·판매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익성이 가미된 축제, 축제 초반에는 일본인 관광객의 중심이었으나 다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외국인에게 관심 있는 축제 소재 발굴에 기인하고 있다.

27)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이천도자기축제 성공사례 강의 참고자료", 2002.



축제의 추진방향은 지역특산물의 관광상품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타 지역축제와 차이점이 없으나, 지역특산물의 관광상품화는 도자기 판매 외에 쌀·복숭아·축산 가공품 등 이천의 중심적인 특산물을 선정하여 관광객에게 보여 주고 시식회를 통한 홍보 및 판매를 함으로써 장기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실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축제를 통한 도예산업의 부흥 외에 축제관람객의 유치로 인한 숙박·음식·특산물 판매 등의 간접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축제의 세부적인 추진에 있어서는 축제의 소재인 도자기 제품을 고품질과 다양화로 모색하고 다양한 전시행사와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관광만족도를 한 단계 높이는 전략인 축제이벤트의 다양화를 기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에 축제 홍보물을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망을 통한 배포 및 위성방송을 통한 축제 스팟 광고 실시, 해외 자매도시인 중국(경덕진)과 일본(시가라기), 민간교류 도시인 일본의 가고시마 아리따 등과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국내 외국인 단체 및 민간 외교클럽 인바운드 여행사를 초청하여 팸 투어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축제의 성공요인으로는 이천시에 도예산업 발전의 집중지원을 위해 1996년에 도자기 전담부서인 도예관리팀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자기조합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도예산업 발전을 위한 기구 정비도 기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광객 편의의 축제 운영 및 공격적인 홍보의 성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로 열린 제15회 이천도자기축제는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축제였는데, 1996년부터 기획 구상된 치밀한 준비와 1999년, 2000년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전국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2년 연속 외국 관광객 유치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기관, 도예업체,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총체적인 기관 및 단체의 원활한 협조체제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 2.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2회째인 98년부터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문화관광부가 평가하는 전국최우수문화관광축제로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각종 축제 평가에서도 국내 최고의 지역축제로 성과를 드높이고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사례를 통해 축제추진조직의 구조적 효율성,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성공요인, 민간인력 확보 및 양성, 다양한 홍보 전략, 재정 확충방안,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 개최배경 및 현황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원형의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지정 문화재만 266점)한 안동은 동양의 미학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다. 독특한 문화적 전통으로 인하여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전통문화를 관광상품화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안동은 1997년부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표 7〉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현황

구분	기간	장소	비고
1997	10. 1 - 10. 5	안동시내 (이벤트공원, 하회마을)	
1998	9. 25 - 9. 29	"	문화체육부 10대 문화관광 축제
1999	10. 1 - 10. 10	"	문화관광부 6대 집중육성 축제
2000	9. 29 - 10. 8	"	전국 문화관광 축제 종합평가 2위
2001	10. 5 - 10. 14	"	전국축제종합평가 1위
2002	9. 26 - 10. 5	"	문화관광부 선정 전국최우수 축제 선정
2003	9. 26 - 10. 5	"	문화관광부 선정 전국최우수 축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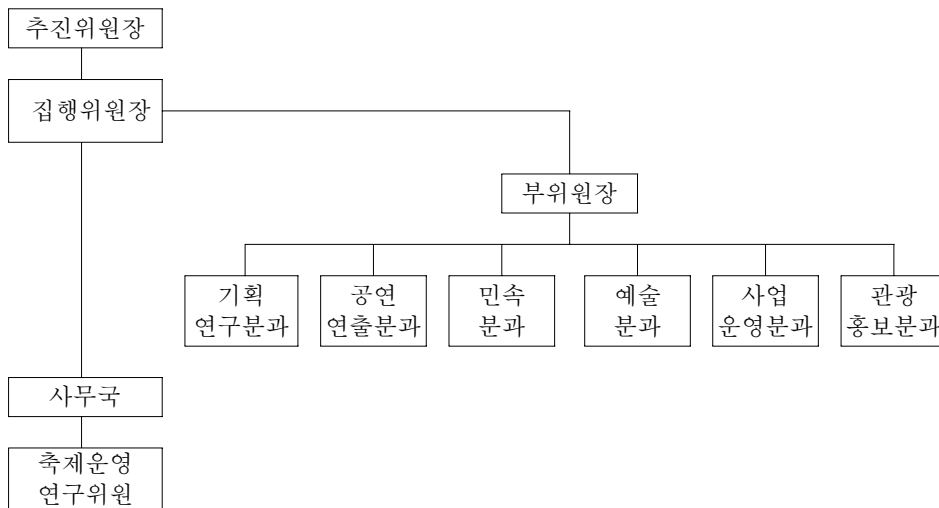
자료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4 (<http://www.maskdance.com>)

(2) 추진조직

2003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축제 조직은 지역민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의 6개 집행분과위원장(2002년의 기획연구분과, 공연연출분과, 사업운영분과, 관광홍보분과 외에 민속분과, 예술분과 확대)과 간사 및 안동시 문화관광과장으로 구성된 축제집행위원회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집행위원회는 각 축제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정·심의하고, 안동시에서는 재정·운영 및 지원기능을 맡는 구도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시행된 탈춤축제연구회 성격의 축제회원제를 도입하여 축제에 관심을 갖는 일반 지역민들과 축제에 봉사자로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도우미로 구성된 축제운영연구회원을 조직산하에 포함시켜 축제 현장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적인 조직구조에 있어서 안동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동이 보장되게 함으로써 축제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그림 2> 200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조직체계



자료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03 조사연구, p.5

### (3) 주요 행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국내외 탈춤공연과 안동민속축제가 중심적인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외 탈춤공연은 2003년에 국내 20개 단체, 국외는 12개국에서 15개 단체가 참가하여 공연되어졌다. 국내공연은 하회별신굿놀이, 강릉관노가면극, 퇴계원산대놀이, 양주별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 수영들놀이, 동래들놀이, 통영오광대, 김해오광대, 가산오광대, 고성오광대, 봉산탈춤, 은율탈춤, 강령탈춤, 예천청단놀이, 동해안탈굿, 양주소놀이굿 등이며, 국외공연은 말레이시아, 몽골, 태국, 독일, 핀란드, 필리핀, 케냐, 브라질,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일본(우라가쿠라, 하다가쿠라, 메데구민요, 푸젠가쿠라) 등이 공연되었다.

안동민속축제는 안동지역에서 행해져오던 대동놀이, 즉 마을의 축제를 모아서 1970년부터 시행되어 온 축제로 주요 행사로는 서제, 성황제 및 굿한마당, 한두실행상소리, 내방가사 경창대회, 차전놀이, 뚝다리밟기, 달집태우기, 도산별시, 저전논매기 시연, 탈곡시연, 낙동강 연등불띄우기 및 범패시연, 윷놀이대회, 널뛰기대회, 투호대회, 전통한복 시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넷물이 마을을 감싸 돌아 흐른다." 고 '하회'라 이름 붙여진 안동하회마을에서도 행사가 열리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탈춤인 하회별신굿 공연을 비롯하여 부용대와 만송정,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선유줄불놀이, 고가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마당판 공연 등이 있다.

이외에 하부축제(가족한마당, 장애인축제, 청소년어울림마당, 부대행사, 실버들의 잔치 등)와 전시참여행사도 펼쳐진다.

### (4) 축제의 발전 요인 및 성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일차적인 요인은 안동이 우리나라 탈춤의 메카라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최대한 살렸다는 점이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항상 새롭게 태어나고자하는 자세

를 일관되게 지켜왔으며, 1997년 첫해부터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외부 평가를 통해 항상 치밀하게 준비된 축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추진조직에 있어서도 행정기관과 지역유지 중심에서 주민중심, 전문가중심의 조직으로 발 빠르게 전환하는 변화를 모색하고, 각 분과별 역할 분담을 철저히 하는 등 소수 정예화, 실무형의 추진조직을 갖추고 있다.

민간 인력의 확보 및 양성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2001년부터 시행된 축제 운영연구회원 제도는 축제에 봉사자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도우미로 구성하여 조직 산하에 포함시켜 축제 현장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권 외국인을 안동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내국인 외국어가이드와 함께 안내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안내의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홍보 전략으로는 인쇄홍보물 배부를 비롯하여 시설홍보물 설치, 홍보설명회 개최, 언론과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방안을 취하고 있으나 인쇄홍보물 제작은 축제 홍보용과 축제안내용, 축제현장용 등 기능과 시기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하고, 홍보설명회도 국내박람회·세미나 방문홍보, 지역초청 팸 투어, 지역민 설명회, 국외 축제에 참가하거나 외국 주요 표적시장을 순회하는 등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재정은 2003년 기준으로, 총세입은 17억 7,540만원이며, 각 세입별로는 보조금 8억원(국비 1억 3,000만원, 도비 1억 3,000만원, 시비 5억 4,000만원), 기타 행사지원금(안동민속축제, 문예진흥기금, 무대진흥기금, 풍물경연 등) 2억 4,050만원, 입장권 판매수입 1억 8,143만원, 상가분양 1억 26만원, 공연료 1,700만원, 휘장사업 4억 1,274만원, 기타(팸플렛 판매 및 이자 수입) 2,347만원으로 나타나, 입장권 판매수입, 상가분양, 공연료, 휘장사업, 기타 수입 등 자체수입금이 총세입예산의 41.4%를 충당하고 있다. 특히 매년 행사잔여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2003년 기준으로 617,525천원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자립도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3의 성과를 정리하였다.<sup>28)</sup>

---

28) 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3 조사연구", 2003, pp.215~227

첫째, 외국인 방문객수의 증가에 있다. 2003년의 성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점으로 안동시의 추정에 의하면 20,120명으로 이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안동적인 관광지인 외국인들에게 축제연계 관광상품으로써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유치 전략으로 시행한 유치보상제 실시의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보는 축제에서 참여하는 체험축제로의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한 점이다. 계층별 참여를 확대하는 체험코너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하회마을 등 안동의 대표적인 민박집을 활용한 전통 민박체험을 외국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전통문화유산의 도시 안동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셋째, 자율적 민간 참여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교사, 학생 등 외국어 통역시민봉사단(87명)을 비롯하여 축제운영위원(200명), 160여개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숨은 일꾼으로 노력한 결과의 성과였다.

넷째, 축제장 시설의 완비와 일부부스의 전통이미지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쉼터 확충, 전통미를 살린 전시·판매장의 부스화, 충분한 주차장 확보, 에어컨이 부착된 이동식 화장실, 영어·일어 등 외국어 음식메뉴 현수막 부착 등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섯째,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축제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사항별 만족도의 응답결과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평가다. 과거에 축제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 역시 탈춤축제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여섯째, 지역경제효과의 개선이다.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의 생산유발효과는 109억 3175만원, 지역경제의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1억 3827만원, 지역경제의 소득유발효과는 53억 1518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곱째, 도시전체를 축제분위기로 승화시킨 점이다.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도 찾아가 축제분위기를 전함으로써 시민과 공유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도시전체를 축제분위기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 3. 영국 에딘버러 군악대축제와 프린지 축제

에딘버러는 옛 스코틀랜드 왕국의 수도로 스코틀랜드 행정·문화의 중심지이며 인구는 약 44만 9천명(1996년 기준)이지만 축제로 연간 1,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유럽의 꽃'으로 불리는 도시이다. 에든버러에는 7종의 주요한 여름 축제들이 있는데 그 중 최대 규모의 축제는 프린지축제이다. 밀리터리 타투, 재즈 페스티벌, 영화제, 도서 축제 등도 있다. 또 미술관들에서 열리는 다양한 전시회들도 있다.<sup>29)</sup>

본 연구는 에든버러축제를 통해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역 문화적 특성과 연계한 축제의 성격 부여, 축제추진조직의 탄력적 운영,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홍보효과를 거두는 홍보전략, 재정 확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 에딘버러 군악대축제

에딘버러 군악대축제의 정식명칭은 '에딘버러 밀리터리 축제(The Edinburgh Military Tattoo)'이다. 에딘버러 군악대축제는 에든버러성에서 열리는데 1950년 에딘버러 국제축제 때 스코틀랜드 군악대가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군악대축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것은 스코틀랜드 특유의 복장인 킬트(kilt) 복장에 독특한 백파이프를 연주하는 스코틀랜드 보병부대의 행진이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군악대, 경찰악대, 민간공연단체들이 참여하여 축제를 펼친다.<sup>30)</sup>

특히 성벽을 타고 폭포가 흘러내리는 듯한 효과를 나타낸 불꽃놀이와 운집한 관중들에게 축제의 정점을 맛보게 하는데 충분했다. 에딘버러 축제를 통해서 받은 감동은 아름다움과 자유, 그리고 여유로움이다.<sup>31)</sup>

에딘버러 타투의 최고 지휘관 겸 연출자는 영국군의 장성급이 맡아 전체적인 추진이 이루어진다.

29) 에딘버러국제축제페스티벌, 주한영국관광청(<http://www.visitbritain.or.kr>)

30) 김춘식·남치호, 「세계 축제경영」, 김영사, 2002, pp.109~111

31) 장연옥, "영국 에딘버러페스티벌", 월간 「문화예술」, Vol 21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7,

에딘버러 군악대축제는 매년 입장객이 20만 명에 달하는 데 이들의 70%가 스코틀랜드 이외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며 특히 전체 입장객의 35%는 해외 방문객들이며 전 세계의 약 1억 명에 달하는 시청자가 TV로 군악대 축제를 보고 있다.

군악대축제가 미치는 경제 효과는 엄청나다. 가장 최근의 공식조사에 의하면 군악대 축제가 스코틀랜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연간 7천2백만 파운드(약 1,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에딘버러 군악대축제가 제시하는 것은<sup>32)</sup> 첫째, 축제만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유명 관광지로의 부상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축제장소 선정 시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축제의 성격이 잘 조화를 이루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에딘버러축제의 경우 독특한 스코틀랜드 군악대의 전통과 고성인 에딘버러 성채, 이 두 가지의 독특한 문화적, 공간적 자원을 절묘하게 조화시켰기 때문에 신비스럽고 매력적이다.

셋째, 최신 기법의 조명이나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축제 공간이나 공연무대를 환상적으로 연출할 필요가 있다. 에딘버러 성채에 시시각각으로 조명의 변화를 주어 축제를 더욱 환상적으로 연출하여 군악대 축제가 열리는 밤이면 아름답고 환상적인 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 (2) 에딘버러 프린지축제

뉴욕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아트 페스티벌이라 평한<sup>33)</sup> 에딘버러 프린지축제는 1947년 8개 극단이 예술과 문화를 통한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평화와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번두리의 작은 극장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공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프린지축제의 관람객 수는 100만 명에 육박하며, 총예산 100만 파운드(약 180억원) 중 70%를 공연 입장료, 참가비, 홍보대행료로 충당하여 자생력도 갖췄다.

1959년에 조직된 프린지 축제위원회(The Festival Fringe Society)는 출판과

32) 김춘식·남치호, 앞책, pp.109~111

33) 장연옥, 앞책, p.79



티켓 판매 그리고 공연자와 청중 양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순수 민간단체이며, 축제위원회 밑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평소에는 운영위원장을 포함 8명이 근무하며, 축제기간 중에는 5주에서 5개월까지 근무하는 임시직원이 50~100명까지 늘어난다. 상당히 소규모 조직으로 거대한 축제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최측이 참가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자문과 안내, 티켓판매, 출판과 웹사이트에서의 홍보에 국한되어지는 무간섭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주최측은 참가공연단을 위해 『프린지축제에서 공연하는 방법(How to do a show on the Fringe)』 과 『프린지축제에서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방법(How to sell a show on the Fringe)』 이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하는데 전자에는 축제에 참가하는 방법, 공연장을 물색하는 방법, 예산의 마련, 스폰서를 구하는 방법, 대표소의 운영, 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숙박이나 여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것을 소개하고 있으며, 후자는 홍보와 마케팅에 관한 내용으로 언론홍보와 마케팅의 개념에서부터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방법, 홍보물의 프린트와 디자인 방법, 언론홍보 방법, 각종 신문사와 방송국의 주소 등을 안내하고 있다.

프린지축제는 시작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프린지 축제위원회는 공연자를 초청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축제참가에 아무런 제약도 없다는 점, 둘째, 축제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공연단은 공연장소와 스폰서 등 제반 사항을 스스로 해결해야하며, 셋째, 관중의 호응도가 가장 중요하여 생존의 여부는 공연단에게 있다는 점이다.

공연장 또한 극장, 콘서트홀, 학교, 교회, 호텔, 카페, 클럽, 식당, 야외정원등 약 200개의 다양한 공간이 사용되는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어느 곳이나 사용된다.

#### 4.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프로방스 지방의 유서 깊은 역사도시 아비뇽에서는 매년 7월 세계적인 연극축제 '아비뇽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아비뇽 페스티벌은 상업적인 논리나 단순한 오락으로 관객들을 끌어들이지 않고, 변변한 공연시설 하나 없는 지방의 소도시에서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축제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본 연구는 아비뇽 페스티벌을 통해 축제추진조직의 효율성 및 민간인의 실질적인 참여, 예술축제로서의 프로그램 차별화, 재정확충방안, 행사장 확보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비뇽 페스티벌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연극축제가 되기까지에는 탁월한 연극배우이자 무대감독인 장 빌라르(Jean Vilar)를 비롯하여 폴 포(Paul Puaux), 베르나르 페브르 다르시예(Bernard Faivre d'Arcier), 알랭 크롱베크(Alain Crombecque), 베르나르 페브르 다르시예(Bernard Faivre d'Arcier)로 이어지면서 지난 50여 년간 축제는 엄청나게 변화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단지 네 사람의 감독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다.

축제의 조직기구는 1980년대 이래 아비뇽 페스티벌은 유럽의 거의 모든 페스티벌 단체와 마찬가지로 비영리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conseil d'administration)이다. 이사장은 규정에 의해 아비뇽 시장이 맡지만 축제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이끌어 가는 사람은 예술감독(le directeur artistique)과 행정국장(le directeur administratif)이다. 이들은 아비뇽 시장과 문화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5년이다. 예술감독은 축제 프로그램의 선택에 대하여 '절대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sup>34)</sup>

아비뇽 페스티벌의 업무는 파리 사무소와 아비뇽 페스티벌 본부 두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축제사무국의 인원은 파리 사무소와 아비뇽 본부를 합쳐 평소에는 20명 내외의 직원이 상근하며 축제가 열리는 몇 주 동안은 수백 명이 고용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아비뇽 시민들이다.

---

34) 김춘식, "국제적인 창작공연의 알찬 축제-아비뇽축제", 월간 「문화도시 문화복지」 Vol7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아비뇽 페스티벌은 연극에서 출발하였고 지금도 연극이 가장 중요한 분야이지만 1964년부터는 그 영역을 확대하여 뮤지컬, 무용, 현대음악, 시, 미술, 영화와 비디오 아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장르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음악을 제외하고는 오랑즈 합창제(les Chorés d'Oranges)나 액상프로방스 오페라 예술 페스티벌(le Festival d'art lyrique d'Aix-en-Provence)과 같은 인근도시에서 열리는 축제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클래식 음악이나 오페라는 공연하지 않는다.<sup>35)</sup>

축제기간 중 아비뇽을 방문하는 인원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공식선정부문의 관람객은 2001년도 제55회 아비뇽 페스티벌의 경우 11만 명으로, 관람 가능한 전체좌석 수 11만 8천석의 93% 점유율을 기록했다.<sup>36)</sup>

축제의 재정 확보는 아비뇽 축제도 초기 10년간은 만성적자에 시달렸었지만 현재는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 전체예산의 55%정도이며, 나머지 45.5%는 축제를 통해 조달되는 자체수입이다. 자체수입은 수입사업으로 얻는 수익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수입원이 입장권 판매수입이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공연되는 작품은 크게 주최측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공식선정부문(in)과 주최측과는 상관없이 거리나 광장에서 자유롭게 공연하는 자유참가부문(off)으로 나뉘어 진다.

아비뇽 페스티벌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조직체계를 통해 몇 가지의 교훈적인 점을 얻을 수 있는 데, 첫째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사람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민간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과 축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최고책임자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자유권'의 보장이다. 둘째는 탈장르의 예술 공연이 이루어지면서도 인근지역에서 행해지는 클래식음악이나 오페라는 공연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오듯이 축제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셋째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치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영체제이다. 넷째는 전문 공연장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작품의 성격에 맞거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모든 곳을 공연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항상 새롭고 신선한 것을 추구하는 왕성한 실험정신에 있다.

---

35) 김춘식·남치호, 앞책, p.21

36) 아비뇽페스티벌 조직위원회(<http://www.festival-avignon.com>)

## 5. 일본 하카다 기온야마카사(博多祇園山笠)

하카다는 후쿠오카와 합쳐진 도시로 현재는 후쿠오카라 불린다. 후쿠오카에서는 일 년에 약 10여개의 축제가 열리는데, 매년 여름, 1톤 무게의 가마를 메고 달리는 경연인 하카다 기온야마카사라는 마쓰리가 열린다.

본 연구는 하카다 기온야마카사의 사례를 통해 전통축제의 특성을 유지하고, 철저히 중심적 행사 위주의 축제형태, 지역주민들이 우선 즐기는 축제의 형태,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의식, 재정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은 마쓰리의 천국이다. 마쓰리는 신사(神社)의 제사이다. 원래 마쓰리는 고대 일본 제정일치의 입장이 반영되어 전래된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주민이 모여 신을 기쁘게 하는 여러 행사를 치르면서 생산의 풍요, 재해와 역병의 방재 등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쓰리는 성대함, 화려함, 북적거림, 비밀상성 등의 성격이 나타나게 되었고 동시에 보이는 축제의 장으로 변하여 온 것이다.<sup>37)</sup>

하카다 기온야마카사는 하카다 구시다 신사(櫛田神社)의 제례이다. 구시다 신사의 3신 중 기온대신(祇園大神)인 수사노오노미코토(素戔鳴命)에 대한 봉납행사인 것이다. 1241년 성일국사 변원(聖一國師 弁圓)이 송나라에서 귀국, 하카다 주민들에게 요청하여 연고자 없이 죽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할 때 사용하던, 시령(선반)인 '세가끼다나(施餓鬼棚)'를 빌려 올라타고 역병퇴치를 위한 기도수(감로수)를 뿌리며 다녔다고 한다. 이 시령이 발전하여 야마카사(山笠)의 형태가 되었다고 한다.<sup>38)</sup>

하카다 기온야마카사는 매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데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7월 15일 새벽 4시 49에 시작하는 오이야마경주이다. 축제의 클라이맥스인 「오이야마」는 무게 1톤의 야마가사(가마)를 수백명의 남자들이 겨체로 짊어서 5km를 달리는 타임을 겨루는 축제다. 15일 오전 4시 59분, 하카타 서낭당인 구시다 신사로부터 7개의 가마가 5분 간격으로 차례차례 거리로 뛰어나와, 경주시간을 다룬다. 길가에 있는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성원과 기세수를 받아 거리는 흥분의 도가니로 변한다.<sup>39)</sup>

37) 최관, 「일본문화의 이해」, 학문사, 1999, pp.269~270

38) 김춘식·남치호, 앞책, pp.210~211

39) 재팬피알닷컴(<http://www.japanpr.com>) 후쿠오카현

기온야마카사가 760여 년의 전통을 지키며 일본의 대표적인 마쓰리로 자리 잡은 것은 전통적 마쓰리의 특성을 철저히 유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의식, 잡다한 부대행사를 배제한 중심적 연행에 충실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카다 기온야마카사를 준비하고 홍보하는 과정에 하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의식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강력한 것이다. 실제 가마를 메고 달리는 이들은 대부분 청장년층이지만 어린이로부터 나이 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구성함으로써 지역 주민 모두가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마쓰리의 경비를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하는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고, 부인회와 각 협회의 여인들도 화려한 전통복장을 입고 마쓰리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홍보하는 열의를 비롯하여 경주 참가자들에게 구경하는 이들은 물을 끼얹어 주고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은 마쓰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고 있다.

마쓰리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모든 과정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동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즐기고 체험하는 축제로 진행되어 외부인들에게 관심대상으로 남기보다는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즐기는 축제라는 점이다.

야마카사를 메고 달리는 경연 이외에 잡다한 부대행사도 없고 외부의 초청공연도 없는 극히 단순한 축제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마쓰리를 구경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열광적으로 집착하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함이기에 타 축제와는 확연한 차별성을 보여 주고 있다.

### 제 3 절 평가를 통한 성공요인 분석

이와 같은 국내외 지역축제의 평가를 통해 몇 가지의 성공요인을 분석할 수 있었다.

각 지역축제의 개최배경을 보면 영국 에딘버러 군악대축제 및 프린지축제,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을 제외한 다른 축제들은 각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소재를 축제화하였다. 이들 축제는 공통적으로 역사성이나 문화적 자산을 축제의 테마로 삼아 대표적인 상징행사를 연출해내고 축제를 통한 다양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었다. 이천도자기축제는 도예촌의 형성과 활성화에 힘입어 도자기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지역에 전해오는 탈춤을, 일본 하카다 기온야마카사는 신사(神社)에 올리는 제사를 활용하여 축제화되어졌다.

축제 추진조직을 살펴보면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는 축제들은 공통적으로 축제추진조직에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축제전문가에 의한 축제 기획 및 집행,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천도자기축제는 지역의 민간단체를 전문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참여시키고 행정기관에 도자기 전담부서인 도예관리팀을 조직화하고 있으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지역민과 경험자들로 구성된 축제운영연구회원제를 조직하여 축제의 현장업무를, 또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외국인 안내 서비스를 맡기고 있었다. 에든버러축제와 아비뇽페스티벌은 평상시에는 소규모로 추진조직을 운영하다가 축제기간에는 대규모로 확대하는 탄력적인 추진조직체계를 취하고 있었다.

홍보 전략은 국내의 경우 대체적으로 인쇄 및 설치 홍보물에 의한 홍보, 언론을 통한 홍보 등 기본적인 홍보전략 외에 국제 교류를 통한 해외의 간접홍보,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 투어 및 축제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전략들을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국내축제의 안동의 경우 인쇄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축제홍보용, 축제안내용, 축제현장용 등 기능과 시기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하고, 홍보설명회도 지역단체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역민에 대한 축제설명회 등 다각적인 방안을 이용하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에는 예술축제가 갖는 특수성으로 기본적인 안내책자 발간을 제외한 홍보예산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성공적인 축제로 성장함으로써 특별한 홍보전략 펼치지 않고 있었다.

재정과 관련된 자료들은 충분치 못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할 수 없으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입장권 판매수입, 상가분양, 공연료, 휘장사업, 기타 수입 등 자체수입금으로 총세입예산의 41.4%를 총당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행사잔여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2003년 기준으로 617,525천원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자립도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다. 영국 프린지축제의 경우에도 총예산의 70%를 공연 입장료, 참가비, 홍보대행료로 총당하고 있는데 축제주최측은 정보제공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어 축제에 필요한 예산 규모도 적었다.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도 전체예산의 45.5%를 자체자금으로 총당하고 있으며, 일본 하카다 기온야마카사는 축제를 준비하고 홍보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따르는데 축제에 필요한 경비는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재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저비용·고효율의 효과를 거두는 축제로 전개하는 것이다. 축제에 많은 예산을 들여 화려하게 치장하고 대규모의 공연단을 유치하는 것보다 비록 적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성공적인 축제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축제나 이벤트를 통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게츠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sup>40)</sup> 첫째, 축제방문객들이 이벤트를 개최하는 장소나 주변지역에서 숙박을 필요로 할 만큼 장기적이거나 매력적인 이벤트를 개최하고, 둘째, 방문객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만한 매력적인 상품을 판매하며, 셋째, 이벤트와 함께 다른 볼거리들을 만들고, 넷째, 이벤트를 위한 스텝이나 출연진의 대부분을 그 지역사람으로 고용하며, 다섯째, 상인이나 노점상 그리고 전시자들이 영업을 하도록 부스를 분양할 때 지역민에게 우선권을 주며, 여섯째, 이벤트를 위한 상품의 구매시 가급적 그 지방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0) Gets, D.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Van Nostrand Reinhold Co. Ltd. 1991, p.304

## 제 4 장 탐라문화제에 대한 연구문제

### 제 1 절 연구문제

앞선 연구에서 제주도 탐라문화제가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평가받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2003년에 개최된 제42회 탐라문화제의 자체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지역 축제 중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통해 그 성공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동안 분석한 자료들은 탐라문화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탐라문화제집행위원회의 자체평가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국내외 지역축제의 사례분석에 의한 평가로서 방문객이나 축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참여자의 평가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영역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탐라문화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탐라문화제를 관람한 방문객들은 탐라문화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축제진행에 참여한 진행요원들은 각각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탐라문화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종합할 때 종합적인 평가도는 어느 정도인지?

연구문제 3. 제주도의 대표 축제인 탐라문화제가 향후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특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에서는 탐라문화제집행위원회의 주관적인 시각에 의한 평가에서 벗어나 탐라문화제 방문객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방문객 만족도를 분석하고, 방문객의 만족도만으로는 행사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탐라문화제의 모든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진행요원의 의견을 파악하여 각각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에서는 제2장에서 다루어진 탐라문화제집행위원회의 자체평가와 〈연구문제 1〉에서 다루어진 탐라문화제의 방문객 만족도, 진행요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탐라문화제의 종합평가는 과연 어느 정도이며,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에서는 앞서 실시된 연구문제들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지역축제로서의 탐라문화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 (1) 방문객 만족도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을 위해 탐라문화제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의 설문조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03년 제42회 탐라문화제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집전본부장으로 직접 참여했던 탐라문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제주관광대학에 의뢰하여 방문객의 만족도에 관한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er)를 이용한 '서베이 조사(survey research)'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서베이 조사를 위한 표집방법은 임의표본추출방식이었으며, 제42회 탐라문화제가 열리는 2003년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주행사장인 제주시 신산공원과 서귀포시 예술축제가 열린 서귀포시 칠십리공연장을 찾은 방문객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면접원을 통한 1대1 개별면접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설문은 350명이 응답하였으나 응답성의가 심하게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283명을 유효 표본으로 확정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 (2) 진행요원 의견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에서 축제진행상의 여러 현상을 보다 깊게 조사하기 위해 2003년 제42회 탐라문화제의 행사진행을 위해 참여한 진행요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가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진행요원들의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축제진행에 참여했던 제주관광대학 관광컨벤션산업과 1학년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03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각 진행요원들이 담당한 행사 안내, 차량통제 및 주차안내, 전시장 및 공연장 관리, 종합안내소 운영, 각종 행사 진행 보조, 관람객 편의시설 관리 등 축제 진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 (3) 탐라문화제 종합평가

제2장에서 다룬 2003년 제42회 탐라문화제에 대한 탐라문화제 집행위원회의 자체평가와 〈연구문제 1〉에서 분석된 방문객의 만족도 결과, 진행요원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성공적인 국내외 지역축제의 성공요인을 함께 이용하였다.

## 2. 분석방법

### (1) 방문객 만족도

〈연구문제 1〉에서는 탐라문화제 방문객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통항목을 살펴보고, 탐라문화제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접근경로, 세부만족도,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응답경향을 파악하여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분석하게 된다.

#### 1) 공동평가항목

방문객의 공동평가항목은 인구 통계적 특성에 의한 요인 중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였으며, 거주 지역에 의한 구분은 제주도민과 관광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2) 접근경로에 의한 만족도

방문객의 접근경로에 의한 만족도는 탐라문화제에 대한 정보수집경로, 행사장 접근에 따른 교통수단을 질문함으로써 탐라문화제에 대한 접근경로를 살펴보고 수량화된 도표를 제시하였다.

#### 3) 세부만족도

방문객의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위해, 제주도를 대표하는 축제로서의 탐라문화제 인식, 타 축제와의 차별화, 가장 관심 있는 행사, 가장 즐거운 행사, 타인에게 추천 의사 여부, 재방문 의사 여부, 전체 프로그램 내용 및 행사운영, 축제테마와 프로그램의 연관성, 주 무대와 야외행사장의 연관성, 관람객 동선의 원활성, 편의시설, 주차 공간 및 주차관리, 행사장 접근의 용이성, 기념품 가격 및 다양성, 행사안내 및 홍보의 신속성, 음식가격 및 서비스 수준, 행사장 분산, 행사장 운영요원들의 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수량화된 도표로 제시하였으며, 응답결과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상호간에 연관이 있는 항목의 비교분석 및 각 항목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4) 방문객의 향후 발전방향

방문객이 생각하는 탐라문화제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분석을 위해 탐라문화제의 연상 이미지, 향후 강화해야 할 프로그램, 향후 탐라문화제 축제 참여의 중심에 대한 응답을 수량화된 도표로 제시하였으며, 응답결과에 따른 원인과 관람객이 바라는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2) 진행요원 의견

진행요원의 의견은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방법을 탈피하여 직접 인터뷰에 의한 조사였으며, 각 진행요원들이 담당한 업무가 다르므로 전체적인 의견을 수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축제행사장, 관람객 및 출연진의 편의시설, 홍보, 행사 안내, 프로그램, 행사진행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진행요원이 제시하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함께 다루었다.

#### (3) 탐라문화제 종합평가

탐라문화제 대한 평가와 방문객 만족도, 진행요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탐라문화제가 현재 처한 문제점을 조직, 홍보 및 프로그램, 재정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제시하였다.

## 제 5 장 연구결과

### 제 1 절 탐라문화제에 대한 종합평가

#### 1. 탐라문화제 방문객 만족도

##### (1) 공동평가항목 분석

유효 표본 응답자 283명의 구성 비율은 남성은 139명(49.1%), 여성은 144명(50.9%)이었다. 제주도민은 248명(87.6%), 제주도외에서 관람을 온 관광객은 35명(12.4%)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30.0%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6.5%, 10대가 24.4%로 전체 응답자 중에서 10~30대가 80.9%를 차지하고 있다.

10~30대의 응답비중이 높은 것은 예년의 탐라문화제가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가장 많았으나, 2003년에는 제주국제음식페스티벌이 개최되면서 40대 이하 연령층의 관람이 증가하였고, 50대와 60대는 설문조사에 응하는 적극성이 다소 미약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탐라문화제가 전통문화축제로서 30대 이하 연령층의 참여도가 약한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결과는 향후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분석된다.

〈표 8〉 공동평가항목 비율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성별	남	120	48.4	19	54.3	139	49.1
	여	128	51.6	16	45.7	144	50.9
	합계	248	100.0	35	100.0	283	100.0
연령별	10대	51	20.6	18	51.4	69	24.4
	20대	77	31.0	8	22.9	85	30.0
	30대	69	27.8	6	17.1	75	26.5
	40대	34	13.7	3	8.6	37	13.1
	50대	15	6.0	0	0.0	15	5.3
	60대 이상	2	0.8	0	0.0	2	0.7
	합계	248	100.0	35	100.0	283	100.0

(2) 탐라문화제에 대한 접근 경로

1) 정보수집경로

탐라문화제에 대한 정보 수집 경로는 <표 9> 처럼 방송매체 32.1%, 주위사람 31.3%, 지나다가 우연히 16.6%, 기타 10.1%, 신문/잡지 4.1%, 여행사 2.6%, 인터넷 2.2%의 순으로 응답하여 방송매체와 주위사람의 권유에 의한 정보 수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축제가 열리기 15일전부터 제주도내 공중파 방송사와 유선 방송사를 이용한 방송광고, 그리고 방송매체가 가지고 있는 시청각적인 전파력의 파급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위사람에 의한 정보 수집 경로는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할 때 일반적으로 동행자와 함께하는 경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외 관람객인 관광객(35명)만을 대상으로 한 비율은 지나다가 우연히 45.7%, 주위사람 17.1%, 여행사 17.1%, 인터넷 8.6%, 방송매체 5.7%, 기타 5.7%의 순으로 응답하여 관광객들은 탐라문화제에 대한 사전 인지도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여행을 통한 정보수집경로의 응답자가 17.1%에 불과한 것은 여행을 통한 관람객 유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는 홍보 전략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탐라문화제 정보수집경로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인터넷	3	1.3	3	8.6	6	2.2
방송매체	84	36.1	2	5.7	86	32.1
신문,잡지	11	4.7	0	0.0	11	4.1
여행사	1	0.4	6	17.1	7	2.6
주위사람	78	33.5	6	17.1	84	31.3
지나다가 우연히	31	13.3	16	45.7	47	16.6
기타	25	10.7	2	5.7	27	10.1
합계	233	100.0	35	100.0	268	100.0
결측	15	-	-	-	15	-
합계	248	-	35	-	283	-

2) 행사장 접근 교통수단

행사장 접근에 따른 교통수단은 <표 10> 처럼 자가용 46.1%, 도보/기타 20.9%, 시내버스 14.5%, 관광버스 10.3%, 택시 8.2% 순으로 응답하여 자가용 이용 관람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중 도보/기타 20.9%는 조사 대상지역인 제주시 신산공원과 서귀포시 칠십리공연장이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어 인근 지역주민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자가용을 비롯한 시내버스, 택시 등의 응답자는 행사장과 다소 거리가 떨어진 지역의 방문객이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0> 행사장 접근 교통수단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자가용	123	49.8	7	20.0	130	46.1
택시	20	8.1	3	8.6	23	8.2
관광버스	8	3.2	21	60.0	29	10.3
시내버스	38	15.4	3	8.6	41	14.5
기타	58	23.5	1	2.9	59	20.9
합계	247	100.0	35	100.0	282	100.0
결측	1	-	-	-	1	-
합계	248	-	35	-	283	-

(3) 방문객 세부만족도

1) 제주 대표축제로서의 탐라문화제 인식

탐라문화제를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높다와 매우 높다는 응답자 합계가 48.4%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응답계층별 비율에서도 제주도민 49.2%, 관광객 42.8%의 결과를 보여 대체적으로 탐라문화제를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낮다 7.1%, 매우 낮다 1.8%의 응답률을 보더라도 탐라문화제가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인식하는 결과를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중간자적인 입장의 응답인 보통의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42.8%(제주도민 40.7%, 관광객 57.1%)로 나타난 결과는 탐라문화제를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분석된다.

〈표 11〉 제주 대표축제로서의 탐라문화제 인식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 높다	34	13.7	4	11.4	38	13.4
높다	88	35.5	11	31.4	99	35.0
보통	101	40.7	20	57.1	121	42.8
낮다	20	8.1	0	0.0	20	7.1
매우 낮다	5	2.0	0	0.0	5	1.8
합계	248	100	35	100	283	100

2) 타 축제와의 차별화 정도

탐라문화제와 타 지역축제와의 차별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차별화가 높다는 의견보다 보통이라는 응답률이 월등히 높아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급히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광객들은 71.4%가 타 축제와의 차별성이 보통이다에 응답함으로써 보통이다 전체 응답비율 61.0%보다 11.4%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도민의 14.5%가 낮다 이하의 응답을 보이고 있어 탐라문화제가 타 축제와의 차별화 정도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타 축제와의 차별화 정도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 높다	15	6.1	1	2.9	16	5.7
높다	49	19.8	8	22.9	57	20.2
보통이다	147	59.5	25	71.4	172	61.0
낮다	29	11.7	0	0.0	29	10.3
매우 낮다	7	2.8	1	2.9	8	2.8
합계	247	100	35	100	282	100.0
결측	1	-	-	-	1	-
합계	248	-	35	-	283	-



3) 탐라문화제의 가장 관심 있는 행사

탐라문화제 행사 중에 가장 관심이 있는 행사를 묻는 설문에 제주도민이나 관광객 모두, 제주시 민속축제(39.5%)를 가장 관심이 큰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주행사장이 제주시(신산공원)에 위치하고, 또한 행사기간에 있어서도 제주시 민속축제가 6일인 반면 다른 지역의 행사장에서 열리는 행사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제주시 민속축제를 관람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고, 본 설문조사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사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예술축제와 자조 경연행사의 응답자가 많은 것은 주행사장인 제주시 신산공원의 바로 인근에 문예회관이 위치한 원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3〉 탐라문화제의 가장 관심 있는 행사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제주시 민속축제	86	38.2	16	48.5	102	39.5
서귀포시 예술축제	18	8.0	5	15.2	23	8.9
북제주군 자연·생태탐방 축제	30	13.3	2	6.1	32	12.4
남제주군 마을 축제	8	3.6	2	6.1	10	3.9
예술 축제, 자조·경연행사	59	26.2	5	15.2	64	24.8
기타	24	10.7	3	9.1	27	10.5
합계	225	100	33	100	258	100
결측	23	-	2	-	25	-
합계	248	-	35	-	283	-

4) 탐라문화제 행사 중 가장 즐거운 행사

탐라문화제 행사 중 가장 즐거운 행사를 묻는 설문에서 공연관람 55.5%, 먹거리 35.8%로 두 항목의 합계가 전체 응답자의 91.3%로 나타났다. 특히 먹거리 응답자 35.8%의 결과는 먹거리장터 입점자가 작년까지는 일반상인이었으나 2003년에는 전문식당과 음식점협회가 참여하였으며, 국제음식페스티벌과 연계한 행사로 변화를 모색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런 결과는 관람객들의 축제참여에 있어서 먹거리도 중요한 관람객 유인의 요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탐라문화제 행사 중 가장 즐거운 행사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공연관람	129	54.0	23	65.7	152	55.5
먹거리	89	37.2	9	25.7	98	35.8
쇼핑	11	4.6	2	5.7	13	4.7
기타	10	4.2	1	2.9	11	4.0
합계	239	100	35	100	274	100.0
결측	9	-	-	-	9	-
합계	248	-	35	-	283	-

6) 탐라문화제를 타인에게 추천 및 재방문 의사 여부

탐라문화제를 타인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느냐는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83.6%가 그렇다를 응답하였으며, 재방문의 의사가 있느냐는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85%가 그렇다를 응답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표 12〉의 타 축제와의 차별화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 보통이다의 응답 61%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탐라문화제가 향후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인 타 축제와의 차별화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 보통이다에 응답한 61.0%는 타 지역축제와의 차별성이 낮다는 성향보다 차별성이 높다는 성향으로 기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된다.

〈표 15〉 탐라문화제를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 여부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그렇다	204	82.9	30	88.2	234	83.6
아니다	42	17.1	4	11.8	46	16.4
합계	246	100	34	100	280	100.0
결측	2	-	1	-	3	-
합계	248	-	35	-	283	-

〈표 16〉 탐라문화제에 재방문 의사 여부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그렇다	210	85.4	28	82.4	238	85.0
아니다	36	14.6	6	17.6	42	15.0
합계	246	100	34	100	280	100.0
결측	2	-	1	-	3	-
합계	248	-	35	-	283	-

7) 탐라문화제 전체 프로그램 내용 및 행사 운영 만족도

전체 프로그램 내용 및 행사 운영 만족도는 보통 52.3%, 만족 30.1%, 매우 만족 8.2%로 응답하여 방문객들은 탐라문화제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족과 매우 만족의 합계가 38.3%로 중간자적인 응답인 보통의 응답률 52.3%보다 14%나 낮게 나타나고 있어 보통의 응답률을 만족항목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표 17〉 탐라문화제 전체 프로그램 내용 및 행사 운영 만족도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18	7.4	5	14.3	23	8.2
만족	75	30.7	9	25.7	84	30.1
보통	125	51.2	21	60.0	146	52.3
불만족	21	8.6	0	0.0	21	7.5
매우 불만족	5	2.0	0	0.0	5	1.8
합계	244	100.0	35	100.0	279	100.0
결측	4	-	-	-	4	-
합계	248	-	35	-	283	-

8) 축제테마와 프로그램 연관성 만족도

축제테마와 프로그램 연관성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47.8%, 만족 34.4%, 매우 만족 6.2%로 응답하고 있어 탐라문화제 방문객들은 테마와 프로그램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응답자 중에 중간자적인 응답인 보통의 응답률인 47.8%이 만족과 매우 만족의 응답자 합계 40.8%보다 7.0%나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보통의 응답률을 만족항목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표 18〉 축제테마와 프로그램 연관성 만족도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14	5.8	3	8.6	17	6.2
만족	83	34.4	12	34.3	95	34.4
보통	114	47.3	18	51.4	132	47.8
불만족	27	11.2	2	5.7	29	10.5
매우 불만족	3	1.2	0	0.0	3	1.1
합계	241	100	35	100.0	276	100.0
결측	7	-	0		7	-
합계	248	-	35		283	-

9) 주 무대와 야외행사장 시설 만족도

주 무대와 야외행사장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40.9%, 만족 34.1%, 매우 만족 10.0%로 응답하여 방문객들은 주 무대와 야외행사장의 시설 만족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만족과 매우 만족의 응답 합계가 44.1%로 보통의 응답률 40.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주 무대와 야외행사장의 시설 만족도는 긍정적인 평가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대한 응답률 합계에서 도외 관광객은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제주도내 응답자는 16%로 응답하고 있어 제주도민들이 외지 관광객보다 주 무대와 야외행사장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주무대와 야외행사장 시설 만족도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24	9.8	4	11.4	28	10.0
만족	77	31.6	18	51.4	95	34.1
보통	104	42.6	10	28.6	114	40.9
불만족	37	15.2	3	8.6	40	14.3
매우 불만족	2	0.8	0	0.0	2	0.7
합계	244	100	35	100	279	100.0
결측	4	-	0	-	4	-
합계	248	-	35	-	283	-

10) 관람객 관람 동선의 원활성 만족도

관람객 관람 동선의 원활성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40.2%, 만족 30.8%, 불만족 21.5%로 응답하여 만족의 응답자가 불만족의 응답자보다 9.3% 높게 나타났으나, 격차가 심하지 않고 보통의 응답자 40.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할 때 관람객의 관람 동선의 원활성은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주도민의 응답률을 보면 만족과 매우 만족의 합계가 32.4%인 반면 불만족 합계는 26.6%로 5.8%의 차이밖에 없어 관람객들이 행사장내에서 이동할 때 동선의 원활성은 다소나마 부정적인 견해가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행사장인 신산공원이 축제장으로 조성된 곳이 아니라 인근 주민의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었기에 통행로가 좁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더욱이 신산공원 중앙에 88올림픽 기념 조각 작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광장 주변에는 농구대를 비롯한 체육 시설 및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공간적 여유가 없는 곳이다.

또한 행사기간에는 관람객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양측에 먹거리장터, 전시코너, 기념품 판매시설 등이 개설되면서 관람객의 동선을 더욱 협소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20〉 관람객 관람 동선의 원활성 만족도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7	2.9	3	8.6	10	3.6
만족	72	29.5	14	40.0	86	30.8
보통	100	41	12	34.3	112	40.2
불만족	54	22.1	6	17.1	60	21.5
매우 불만족	11	4.5	0	0.0	11	3.9
합계	244	100	35	100	279	100.0
결측	4	-	0	-	4	-
합계	248	-	35	-	283	-

11) 관람객의 편의시설 만족도

관람객의 편의시설(화장실, 휴식 공간, 공중전화, 급수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38.5%, 만족 29.1%, 불만족 19.4%, 만족 10.4%로 응답하여 만족과 매우 만족의 응답자 합계 39.5%는 보통의 응답자 38.5%나 불만족의 응답자 19.4%보다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외지에서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의 불만족도는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제주도민의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에 응답한 합계가 23.9%로 나타나고 있어 외지 관광객보다 제주도민들이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높고, 보통의 응답자 38.5%도 상당한 비율임을 감안할 때 관람객이 느끼는 편의시설의 만족도는 부정적인 평가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주행사장인 제주시 신산공원뿐만 아니라 서귀포 칠십리공연장 등 각 행사장은 축제 행사장으로 조성된 곳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근린공원(제주시 신산공원)이나 관광지 주차장(서귀포시 칠십리 공연장, 남제주군 성읍리 민속촌, 남제주군 대정읍 조각공원)으로 이용되는 곳으로 제주시 신산공원을 제외한 행사장에는 상설화된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제주시 신산공원을 제외한 타 행사장은 행사기간이 짧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마저 증설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 관람객의 편의시설 만족도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25	10.3	4	11.4	29	10.4
만족	69	28.4	12	34.3	81	29.1
보통	91	37.4	16	45.7	107	38.5
불만족	51	21.0	3	8.6	54	19.4
매우 불만족	7	2.9	0	0.0	7	2.5
합계	243	100	35	100	278	100.0
결측	5	-	0	-	5	-
합계	248	-	35	-	283	-

12) 행사장의 주차 공간 및 주차관리 만족도

행사장의 주차 공간 및 주차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32.6%, 만족 27.9%, 불만족 22.8%로 응답하여, 만족의 응답자가 불만족의 응답자보다 5.1% 높게 나타났으나, 보통의 응답자 32.6%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점을 감안할 때 관람객들이 느끼는 행사장의 주차 공간 및 주차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앞선 〈표 10〉의 결과를 볼 때 제주도민의 행사장 접근 교통수단으로 자가용 이용자가 제주도민 전체 응답자의 49.8%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지역과 인접한 제주시 신산공원의 여건상 많은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제주시 신산공원을 제외한 타 행사장은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지만 축제기간에는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관광객들은 만족의 응답률이 31.4%로 보통과 동일하게 응답하는 것은 〈표 10〉의 행사장 접근 교통수단의 조사결과에서 관광객의 경우 60.0%가 관광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을 반영할 때 관광객이 느끼는 주차공간 및 주차관리의 만족도는 제주도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향후 더욱 많은 제주도민 관람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의 확충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22〉 행사장의 주차 공간 및 주차관리 만족도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24	10.0	9	25.7	33	12.0
만족	66	27.4	11	31.4	77	27.9
보통	79	32.8	11	31.4	90	32.6
불만족	60	24.9	3	8.6	63	22.8
매우 불만족	12	5.0	1	2.9	13	4.7
합계	241	100	35	100	276	100.0
결측	7	-	0	-	7	-
합계	248	-	35	-	283	-

13) 행사장 접근의 용이성 만족도

행사장 접근의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는 주행사장인 제주시 신산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장도 대체적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접근이 용이하여 방문객들은 보통 40.4%, 만족 35.4%, 매우 만족 13.7%로 응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표 23〉 행사장 접근의 용이성 만족도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32	13.1	6	18.2	38	13.7
만족	86	35.2	12	36.4	98	35.4
보통	100	41.0	12	36.4	112	40.4
불만족	21	8.6	3	9.1	24	8.7
매우 불만족	5	2.0	0	0.0	5	1.8
합계	244	100	33	100.0	277	100.0
결측	4	-	2	-	6	-
합계	248	-	35	-	283	-

14) 행사장내 기념품 가격 및 다양성 만족도

행사장내 기념품의 가격과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불만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표 24〉 처럼 행사장내 기념품 가격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는



보통 50.4%, 불만족 25.7%, 매우 불만족 10.7%, 만족 10.3%로 응답하고 있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합계 비율이 전체 응답비율의 36.4%로 방문객들은 행사장내 기념품 가격에 대하여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5>의 행사장내 기념품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응답에서 보통 38.2%, 불만족 36.0%, 만족 11.3%, 매우 불만족 10.9%의 응답률을 보여 불만족 응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방문객들의 기념품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특히 제주도민들은 기념품의 가격에 대한 응답에서 보통 51.3%는 불만족 25.6%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중간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기념품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통 36.1%는 불만족 37.8%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어 기념품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에서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행사장내 기념품의 가격 및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에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응답 합계가 만족과 불만족의 응답 합계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24> 행사장내 기념품 가격 만족도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6	2.5	2	5.9	8	2.9
만족	23	9.7	5	14.7	28	10.3
보통	122	51.3	15	44.1	137	50.4
불만족	61	25.6	9	26.5	70	25.7
매우 불만족	26	10.9	3	8.8	29	10.7
합계	238	100	34	100	272	100.0
결측	10	-	1	-	11	-
합계	248	-	35	-	283	-

〈표 25〉 행사장내 기념품 다양성 만족도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7	2.9	3	8.8	10	3.6
만족	27	11.2	4	11.8	31	11.3
보통	87	36.1	18	52.9	105	38.2
불만족	91	37.8	8	23.5	99	36.0
매우 불만족	29	12.0	1	2.9	30	10.9
합계	241	100	34	100	275	100.0
결측	7	-	1	-	8	-
합계	248	-	35	-	283	-

15) 행사안내 및 홍보의 신속성 만족도

행사안내 및 홍보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51.8%, 불만족 19.1%, 만족 16.5%로 응답하여 방문객들은 행사안내 및 홍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 응답이 19.1%로 만족 응답률 16.5%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만족과 매우 만족에 대한 합계비율이 21.9%인데 비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합계비율은 26.3%로 불만족 합계비율이 만족의 합계비율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행사안내 및 홍보의 신속성 만족도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12	4.9	3	8.6	15	5.4
만족	40	16.5	6	17.1	46	16.5
보통	126	51.9	18	51.4	144	51.8
불만족	46	18.9	7	20.0	53	19.1
매우 불만족	19	7.8	1	2.9	20	7.2
합계	243	100	35	100	278	100.0
결측	5	-	0	-	5	-
합계	248	-	35	-	283	-

16) 음식가격 및 서비스 수준 만족도

음식가격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43.7%, 불만족 30.0%, 만족 14.1%로 방문객들은 음식가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불만족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은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응답 합계가 22.9%인데 반하여, 제주도민의 경우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합계 비율이 39.6%로 제주도민이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7〉 음식가격 및 서비스 수준 만족도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10	4.1	3	8.6	13	4.7
만족	32	13.2	7	20.0	39	14.1
보통	104	43.0	17	48.6	121	43.7
불만족	78	32.2	5	14.3	83	30.0
매우 불만족	18	7.4	3	8.6	21	7.6
합계	242	100	35	100	277	100.0
결측	5	-	0	-	5	-
합계	248	-	35	-	283	-

17) 행사장 분산 만족도

행사장 분산으로 인한 만족도는 보통 47.7%, 불만족 24.0%, 만족 17.2%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방문객들은 행사장 분산으로 인한 만족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응답 합계가 31.1%로 만족과 매우 만족의 응답 합계 21.3%보다 10% 가까이 높게 나타났으나,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응답한 결과를 보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합계 20%는 만족과 매우 만족의 응답의 합계 31.4%보다 낮게 나타나 상반된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의 응답이 불만족 쪽으로 기운 반면, 관광객은 만족 쪽으로 기울고 있어 관광객들은 행사장 분산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표 28〉 행사장 분산으로 인한 만족도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11	4.5	4	11.4	15	5.4
만족	41	16.8	7	20.0	48	17.2
보통	116	47.5	17	48.6	133	47.7
불만족	61	25.0	6	17.1	67	24.0
매우 불만족	15	6.1	1	2.9	16	5.7
합계	244	100	35	100	279	100.0
결측	4	-	0	-	4	-
합계	248	-	35	-	283	-

18) 행사장 운영요원들의 서비스 만족도

행사장 운영요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45.4%, 만족 26.4%, 매우 만족 15.4%로 방문객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지에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만족의 응답이 45.7%로 보통의 응답 40.0%보다도 5.7%나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불만족 응답도 2.9%에 불과하여 행사장 운영요원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인 응답에서도 만족의 비율이 불만족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행사장 운영요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9〉 행사장 운영요원들의 서비스 만족도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매우 만족	39	15.9	4	11.4	43	15.4
만족	58	23.7	16	45.7	74	26.4
보통	113	46.1	14	40.0	127	45.4
불만족	26	10.6	0	0.0	26	9.3
매우 불만족	9	3.7	1	2.9	10	3.6
합계	245	100	35	100	280	100.0
결측	3	-	0	-	4	-
합계	248	-	35	-	283	-

(4) 방문객의 향후 발전방향

1) 탐라문화제 연상 이미지

탐라문화제라는 축제명을 들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에 대한 설문에서 흥겹다 53.1%, 매우 흥겹다 5.5%로 응답하여 탐라문화제의 이미지가 역동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민과 관광객 모두 흥겹다의 응답이 50%를 넘어, 탐라문화제에 대한 연상 이미지는 동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0〉 탐라문화제 연상 이미지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 흥겹다	13	5.5	2	5.7	15	5.5
흥겹다	123	51.7	22	62.9	145	53.1
별 생각이 없다	91	38.2	10	28.6	101	37.0
지루하다	11	4.6	1	2.9	12	4.4
합계	238	100	35	100	273	100.0
결측	10	-	-	-	10	-
합계	248	-	35	-	283	-

2) 향후 강화해야 할 프로그램

탐라문화제가 흥겨운 축제가 되기 위해 향후 강화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에서 전통적이면서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47.7%, 현대적이면서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25.4%로 응답하여 현대적인 프로그램 보다 전통성을 유지하는 프로그램 강화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공연형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응답률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전통적 공연형 프로그램 강화가 16.8%, 현대적 공연형 프로그램 강화가 8.6%로 응답하여 전통을 유지하는 프로그램 강화에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대적 축제의 관람객 참여도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자적 관람자의 입장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체험하는 주체적인 생산자의 입장으로 변화해가는 추세가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표 31〉 향후 강화해야 할 프로그램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통적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101	45.5	21	61.8	122	47.7
전통적 공연형 프로그램 강화	39	17.6	4	11.8	43	16.8
현대적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59	26.6	6	17.6	65	25.4
현대적 공연형 프로그램 강화	20	9.0	2	5.9	22	8.6
기타	3	1.4	1	2.9	4	1.6
합계	222	100	34	100	256	100
결측	26	-	1	-	27	-
합계	248	-	35	-	283	-

### 3) 향후 탐라문화제에 축제 참여의 중심

탐라문화제에 축제 참여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현실적으로 마을주민이 자생적으로 축제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 또는 대학을 중심으로 마을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39.7%, 기존 방식대로 관이 중심이 되어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5.4%, 현실적으로 마을주민이 자생적으로 축제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9.2%로 응답하여 지역의 대학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층별 응답결과를 보면 제주도민들은 학교 또는 대학을 중심으로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나, 관광객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관이 중심이 되어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어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응답에서도 제주도민들은 30.2%로 2순위로 응답하였으나 관광객들은 22.9%로 3순위로 응답하여 다소 상반된 응답결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어느 한쪽의 방안을 선호하는 것보다 관과 학교,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이천도자기축제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처럼 성공적인 축제들을 보면 전체적인 조직구조에 있어서 행정기관, 축제관련 단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대학 및 학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간의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동이 보장되게 함으로써 축제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 예에서도 알 수 있다.

〈표 32〉 향후 탐라문화제에 축제 참여의 중심

구분	도내		도외(관광객)		전체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관 중심	57	25.7	16	45.7	73	25.4
학교 또는 대학 중심	91	41.0	11	31.4	102	39.7
시민 단체 중심	67	30.2	8	22.9	75	29.2
기타	7	3.2	0	0.0	7	2.7
합계	222	100	35	100	257	100
결측	26	-	-	-	26	-
합계	248	-	35	-	283	-

## 2. 탐라문화제 진행요원 의견

탐라문화제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면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관람객의 설문결과만으로는 축제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행사진행에 참여한 진행요원 40명과의 인터뷰를 통한 의견을 정리하였다.

### (1) 축제 행사장 배치

1) 주행사장으로서 6일간의 축제기간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제주시 신산공원의 특설무대와 시·군 민속예술축제가 열리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광장과의 동선이 연결되지 않아 축제의 리듬이 끊기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시·군 민속예술축제가 끝나면 특설무대 프로그램을 관람하지 않고서 돌아가 버리는 관람객의 수가 상당수에 달했다.

2) 공간적 여유가 협소한 신산공원에 특설무대를 비롯하여 무형문화제 재현장, 향토음식점 등이 모두 배치되어 짧은 시간에 공연, 전시, 체험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혼잡성을 유발시키고 있었다.

3) 시·군 민속예술축제 중 서귀포시 민속예술축제를 서귀포시 칠십리공연장으로 이전하여 개최함으로써 축제분위기를 확대하려는 노력은 좋았으나, 관람객이 너무 저조하여 축제 행사장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는 반감되었다.

### (2) 관람객 및 출연진 편의시설

1) 주차장 확보는 제주시 행사장의 경우 신산공원 일대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자가용 이용 관람객이 많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있으며, 주차통제 및 관리에 따른 진행요원을 대폭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었다.

2) 행사장내에 쓰레기수거함이 부족하여 행사장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버려졌으며 깨끗한 축제장의 이미지로 개선하기 위해 쓰레기수거함 확충 및 환경도우미 도입, 환경 시민의식 캠페인이 병행되었으면 한다.



### (3) 홍보

1) 제주시내 가로등에 배너 홍보물을 설치하였으나 일부구간에 국한하여 설치함으로써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제주도내 다른 행사장에는 전혀 설치가 되지 않아 제주시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 축제시작에 이르러서야 일부 방송사에 한하여 방송광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또한 제주도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인 한계에 머물렀으며, 방송횟수도 1일 TV는 4-5회, 라디오는 10여회 정도였으며, 신문은 단 1회에 머물러 파급력이 높은 홍보 및 광고 전략은 상당히 저조하여 집중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했다.

3)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개별적, 집중적인 홍보 전략이 미약해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성과들을 놓치는 경향이 보였으며,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 (4) 행사안내

1) 행사기간 중반에 행사안내 리플릿이 바닥나고, 행사장내에 종합안내판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방문객들의 불평을 유발하였으며, 많은 관람객들이 행사안내 리플릿을 축제관람 후에 버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행사장내에 행사안내 리플릿 수거 코너를 개설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2) 행사안내 진행요원들의 사전 교육이 부족하여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방문객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전교육이 필요하였다.

3) 행사 안내 리플릿이 영어 외에는 번역된 안내서가 없어 외국인에 대한 안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본인과 중국인의 경우 여행사를 통해 행사장을 방문했으나 여행사 안내원도 축제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는 못하고 있었다. 각 프로그램별 별도의 간략한 안내서를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으로 함께 제작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 (5) 프로그램

1) 주제공연인 뮤지컬 공연과 외국예술단 초청공연, 중요무형문화재공연 등은 관람객들로부터 상당한 호평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2) 국제음식페스티벌은 관람객의 상당한 호평을 받았으나, 야외에서 열리면서 깨끗한 이미지가 떨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몽고형 천막 내부를 음식페스티벌과 관련한 인테리어가 보강되어졌으면 한다.

3) 탐라문화제가 전통문화축제가기 때문에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선입감이 앞서지만 축제장에서 느낀 탐라문화제는 상당히 흥겹고 제주도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들이 많아 타 지역축제와는 다른 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6) 행사진행

1) 공연에 따른 사전 리허설이 없어 출연진이 무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조명, 음향과의 연결성도 원활하지 못하였다.

2) 음향시설의 규모는 컸으나 전반적으로 과도한 고음 위주로 진행되어 관람객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주었으며, 무선 핀 마이크의 음질이 떨어져 공연의 질적인 효과를 반감시켰다. 또한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 행사장의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흘러나오는 음악은 20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댄스음악 위주여서 전통문화축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제주의 민요를 비롯하여 전날 공연이 이루어졌던 민속공연의 배경음악이나 주제음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음악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어울릴 것 같다.

3) 민속예술축제 출연진의 복장이 전통의상과 현대의상이 혼합되어 작품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고증작업 및 출연진의 노력이 필요했다.

4) 공연이 휴식시간 없이 진행되면서 앞 공연과 다음 공연 출연진 교체로 인한 대기실(분장 및 탈의실) 사용에 따른 혼잡성이 야기되어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5) 출연진 대기실내에 거울을 제외한 의자, 온수기, 의상걸이대 등 집기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행사중간에 의상 걸이대를 마련했으나 많은 의상을 걸 수 없어 출연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꼈다.

6) 망건, 탕건, 정동벌립 등 무형문화재 재현장이 개설되어 볼거리로 제공되었지만, 재현하는 장소가 몽고형 천막 안에 스티로폼을 깔고 위에 카펫을 덮은 바닥에서 재현하고 있어 무형문화재의 가치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소외되는 느낌을 주었으며 유래, 재료, 가치 등에 대한 제반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서가 전혀 비치되지 않아 관람객이 문의할 경우 일일이 설명함으로써 기능보유자에게 불필요한 피로감을 유발하였는데, 전통적인 디자인을 가미한 작업대를 제공하고 무형문화재 종합 안내서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었다.

### 3. 탐라문화제 종합평가

〈연구문제 1〉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방문객들의 만족도와 진행요원들의 인터뷰 평가의견은 제3장에서 기술한 2003년도 제42회 탐라문화제 집행위원회의 자체 평가와 부분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실질적으로 축제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무대의 음향, 조명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세부적인 문제점들은 〈연구문제 1〉을 통해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2〉로 다루어질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 기술한 2003년도 제42회 탐라문화제 집행위원회의 자체평가와 〈연구문제 1〉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몇 가지의 문제점으로 집약하는 종합적인 평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리된 종합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문제점으로 집약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는 축제 조직의 구조적인 효율성의 제고였다. 주행사장과 인근 행사장의 연계성이 부족한 행사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사장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최상위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의 구조적인 개선을 비롯하여 실무추진조직인 집전본부의 구성에 대한 개선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행사 안내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육성방안,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다.

둘째는 홍보 강화 및 대표 프로그램 개발이다. 탐라문화제에 대한 방문객의 정보 수집경로 및 타 축제와의 차별화 여부, 전체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만족도, 테마와 프로그램의 연계성, 타인에게 탐라문화제를 추천할 의사 여부, 재방문 의사 여부, 기념품 가격 및 다양성 등은 근본적으로 홍보부재 및 대표 프로그램의 부재에서 오는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셋째는 탐라문화제의 재정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이다. 관람객의 편의시설 및 효율적인 홍보전략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히 수반되므로 이에 따른 재정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에 관한 방안의 모색이다.

## 제 2 절 탐라문화제 특성화 방안

### 1. 축제 조직의 구조적 효율성 제고

탐라문화제는 민간주도형의 축제이지만 주관기구인 탐라문화제집행위원회 구성원은 예총과 제주도청, 4개 시·군, 제주도교육청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기구체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확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되며, 집전본부는 확정된 계획을 집행하고 통제하되, 각 행사별 프로그램의 진행은 일부 프로그램(집전본부에서 집행)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관련 전문단체에 직접적인 주관을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책임운영으로 전반적인 축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축제의 현장업무를 지원하는 축제도우미를 전문적인 인력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효율적인 축제진행을 위해 1998년부터 제주관광대학(관광컨벤션산업과)과 산학협동협약을 맺어 대학에서 이벤트 및 축제과목을 배우는 관련학과의 대학생들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분석하면 축제추진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다음과 같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탐라문화제 집행위원회의 참여기관 확대 및 실질적인 지원체제 구축이다.

민간주도형의 축제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지만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바탕으로 최상위 심의 기구의 효율적 구성과 실질적인 지원체제의 구축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시키는 채널의 개방뿐만 아니라 지자체 실시 이후에 발생하는 각 행정기관의 비협조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방안이기 때문이다. 집행위원회에 제주도와 시·군 행정기관, 제주도교육청이 참여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 축제와 민속예술축제, 제주어말하기대회에 참여하는 정도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보다 영역을 확대하여 기존의 행정기관 외에 경찰청, 언론사 등이 참여하는 최상위의 심의 및 지원기구로 구성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의 행정적 업무 및 행사장을 비롯한 기반시설의 정비, 차량통제, 언론 홍보 등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탐라문화제 주행사장이 협소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탐라문화제의 주행사장으로 사용되는 신산공원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과의 공간적 단절로 인한 관람객 유도의 한계성은 우선적으로는 신산공원의 관리기관인 제주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산공원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후문 사이를 잔디광장으로 조성함으로써 관람객의 시야를 확보하고 상호간의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는 현재 사용하는 공간적인 면에서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되겠지만, 신산공원 북측의 공원을 축제행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시민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인위적인 토지정지작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자연적인 구조를 최대한 살리면서 탐라문화제 기간에 축제행사장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장기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는 축제의 모든 실무를 전담하는 실무집행기구의 전문적인 인력 확보다.

주최기관인 예총제주도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면서 사무처에 근무하는 3~4명에 불과한 적은 인원으로 예술문화단체로서의 본연의 업무인 예술 활동과 제주를 대표하는 대규모축제인 탐라문화제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전문적으로 축제를 기획, 집행한 경험들이 있다고 하지만 탐라문화제 하나만을 준비하고 집행하는 전문조직이 아니라 예총제주도연합회의 방대한 연간 사업들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어 탐라문화제에 전념하는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탐라문화제는 2003년 기준으로 50여개가 넘는 방대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프로그램별 전문 주관단체에 맡기는 운영체제를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연계시키는 실질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위험부담이 가중된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천도자기축제를 예로 들면 이천시장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실무집행에 있어서는 총괄기획은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도자관련 업무는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공연행사는 한국예총이천시지부, 문화행사는 이천문화원, 자원봉사요원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천시지부, 도자관련 경연대회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이 맡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의 책임성과 분장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우에도 지역민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의 분과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행정조직인 안동시 문화관광과장이 참여하는 축제집행위원회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 안동시의 재정·운영·지원 기능으로 분업화 되고 있다.

외국 축제의 경우, 에든버러 프린지축제는 순수민간단체인 축제위원회가 평소에는 8명으로, 축제기간에는 임시직원을 50~100명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발도 평소에는 20명 내외에서, 축제기간에는 수백 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음은 업무의 많고 적음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음이다.

탐라문화제도 제주도내의 지역축제로 국한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축제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집행기구를 상설화하고 축제기간에는 운영요원들을 확대하여 보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상설화하는 실무집행기구는 현재의 집행위원회 산하에 있는 집전본부를 예충고유의 업무와는 이원화하는 방안으로 예충 사무처장을 집전본부장으로 두어 전체적인 총괄 및 통제는 맡기되 기획, 홍보, 연출, 수익사업 등 세분화된 실무형 전문가 4~5명 내외의 소수인원으로 구성하여 연중 탐라문화제를 전담하여 준비하고 집행하는 책임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방안이다.

셋째는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진행요원의 안정적인 확보다.

현재 탐라문화제의 진행요원들은 제주관광대학(관광컨벤션산업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도우미 형태로 운영되어 탐라문화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과를 거두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나 행사를 앞두고 짧은 사전교육만을 거쳐 진행요원으로 투입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 부족 및 실질적인 축제의 추진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주관광대학(관광컨벤션산업과) 대학생들에게 학과의 축제 및 이벤트의 실무 집행과 관련한 과목을 선정하여 세부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방법론적 방안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한다.

넷째는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성 확보다.

축제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바쁜 일상에서 이어질 수 있는 불안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으며 일상과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탈 일상의 행위

인 만큼 참가자들은 자유를 만끽하고 기쁨을 얻는 과정에서 이완의 극치를 맛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게 되는 생산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sup>41)</sup>

축제는 일본의 하카다 기온야마카사처럼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동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 즐기고 체험하는 축제로 진행되어 외부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탐라문화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설문에서도 흥겨운 축제가 되기 위해 탐라문화제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으로 전통적 참여형 프로그램의 강화를 전체 응답자의 47.7%가 선택하는 응답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탐라문화제 행사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지역주민이나 관광객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각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민속 예술축제의 형태처럼 수동적인 참여형의 프로그램이 지닌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에게는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1994년 제35회 탐라문화제 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북제주군 동·서 김녕리 지역주민들이 연합으로 작품을 만들면서 일제시대에 분리된 마을을 통합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2000년에 통합한 사례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성공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는 때에 따라 인위적이고 관주도형으로 추진될 수 있으나 축제에서 연행된 작품들을 지역주민들에 의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아가 축제의 성공적인 기반이 된다는 점은 축제 조직의 행위자로서, 축제를 만들어내는 생산자로서의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41) 송정일, 「이벤트 플래닝」, 백산출판사, 2001, p.11



## 2. 홍보 강화 및 대표 프로그램 개발

2003년도 탐라문화제의 방문객 만족도 설문에서 타 축제와의 차별화 정도를 묻는 항목에 응답한 결과는 '차별화가 높다'는 의견보다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월등히 높아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객의 응답에서 71.4%가 타 축제와의 차별성이 '보통이다'에 응답함으로써 '보통이다'의 전체 응답비율 61.0%보다 11.4%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탐라문화제가 타 축제와의 차별성에서 우위를 점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차별화 전략이 상당히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탐라문화제를 타인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느냐'와 '재방문의 의사가 있느냐'는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83.6%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으며, 85%가 재방문의 의사가 있음을 응답하고 있어 탐라문화제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분석되며, 적절한 차별화 전략을 찾는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2003년도 제42회 탐라문화제의 주요프로그램을 보면 타 지역축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는 상황임에도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은, 진행요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에서도 제기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대외적인 홍보의 부재를 들 수 있으며, 둘째는 탐라문화제가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지역적인 문화적 소재를 테마화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다.

탐라문화제의 홍보 전략을 살펴보면 진행요원의 의견 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지만, 제주도내에 국한되어 짧은 기간의 방송광고, 1회에 머무른 신문 광고,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배너 홍보물, 축제기간 중반 이후에는 바닥난 인쇄홍보물,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안내서의 미비 등 전반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더욱이 제주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소재를 담은 탐라문화제만의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행해지면서도 세부적인 안내서가 관람객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아 탐라문화제만의 차별성을 전혀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전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탐라문화제의 차별화를 적극 부각시키는 다양하고 공격적인 홍보 전략의 강화이다.

언론 광고, 배너 홍보물과 인쇄물 홍보 제작에 따른 홍보비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우선이지만 예산증액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주지역의 기업체 및 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메세나형 협찬방안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내 기업의 외형적 규모 및 매출액 등 제반 구조가 상당히 열악하므로 대도시의 축제처럼 대규모적인 협찬이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로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이외에 대외적인 홍보 전략의 방안으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어권별 세부프로그램 안내서를 겸한 통합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전국의 여행사에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대도시에서 홍보설명회 개최, 각 프로그램별 세부설명서 제작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함께 병행되어야 효율적인 홍보 전략으로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또한 진도영등축제가 일본 NHK TV의 특집 방영 이후 일본 내에 진도영등축제를 알리는데 기여를 한 예와 2003년 제42회 탐라문화제 기간에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14개국의 신문 방송사 기자단이 제주를 방문하여 탐라문화제 행사장을 찾아 취재를 한 바 있는 데<sup>42)</sup> 이런 노력들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한 외국대사관과 한국관광공사 등 외국에 축제를 알릴 수 있는 다각적인 채널을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외적인 홍보방안으로 제주는 훈민정음 반포 이래 아래 아(·)를 아직까지도 사용하는 지역으로 한글의 고어에 대한 연구학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연구지역이며 탐라문화제 기간에 제주어 말하기대회가 열리고 있어 이와 연계한 한글의 고어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방안도 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거두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

42) 한라일보, 2003. 10. 9일자

둘째, 탐라문화제를 대표하는 상징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탐라문화제는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하지만 50여개의 프로그램 중 연상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탐라문화제가 축제로서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타 지역축제와의 차별성 확보에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천의 도자기, 안동의 탈춤, 영국 에든버러의 군악대, 프랑스 아비뇽의 연극, 일본 하카다의 아마카사처럼 탐라문화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목적물이 전혀 연상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탐라문화제는 고·양·부 삼성신 탄생의 신화와 혼인지 설화 또한 탐라국이라는 실존적인 고대왕국의 역사적 근거 이래의 역사·문화·예술을 축제의 주테마로 삼아 제주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고 널리 알린다는 취지라면 이러한 테마에 맞는 탐라문화제만의 대표적인 축제 상품을 만들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축제는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종교성이 사라지고 놀이성이 강화되었다지만 분명 축(祝)과 제(祭)가 포괄된 문화현상<sup>43)</sup>이라는 전제하에서 보더라도 탐라문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제례는 '탐라개벽 신위(耽羅開闢 神位)'를 모시고 행해지는 탐라문화제 서제이기에 고·양·부 삼성신 탄생의 신화나 혼인지 설화, 고대왕국인 탐라국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방안이다.

방법론적인 접근으로는 수원화성문화제의 정조대왕 행차, 백제문화제의 백제문화제 역사대행렬처럼 고·양·부 삼성신 탄생의 신화를 비롯한 벽랑공주와의 혼인지 설화, 탐라국의 역사적 소재 등 탐라문화제의 테마를 대규모의 퍼레이드화 하는 방안의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정인수는 탐라문화제 상징행사의 개발모형으로 삼성신·삼공주 선발대회, 탐라역사 가장행렬, 개막공연 「탐라의 개벽」, 삼사석 궁도대회, 혼인지 전통혼례 및 삼공주맞이 이벤트, 학술발표대회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44)</sup> 개발모형을 전부 소화하는 것은 상징행사로서의 대표성이 희석될 수 있으므로 탐라역사 가장행렬과 같은 대규모의 퍼레이드를 선정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펼쳐감으로써 정형화하고 국내외 관람객에게 매력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43)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5, p.133

44) 정인수, "탐라문화제의 발전과제", 제주문화예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2002, 한국예총제주도지회, p.8

그러나 대표적인 상징행사의 개발에 있어서는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우선은 지역주민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지양하고, 지역적·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상징행사를 개발하기보다 일본 기온야마카사처럼 철저히 지역주민이나 참여자가 즐기기를 위한 상징행사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간에 성공을 거두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매년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공적인 상징행사로 만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또한 중심적인 대표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변적 대표 프로그램의 개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안동탈춤페스티벌이 탈춤이라는 대표적인 목적물 외에 안동민속축제에서 행해지는 차전놀이와 선유줄불놀이 등, 이천도자기축제는 도자불씨봉송 등 공식행사 이외에 도자관련의 다양한 참여행사들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받쳐주는 주변적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탐라문화제도 주변적 대표성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화산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기생화산인 오름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에 전국의 지질학자 및 연구가들을 초청하거나, 제주인들이 예로부터 민간신앙의 근원지로 여겼던 신당 탐방 프로그램에 전국의 무속학자가 및 연구가들을 초청하는 방안들도 제주만의 자연적·문화적 소재를 활용한 차별화 전략의 하나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 상징행사가 정착되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년도 참여자의 경험을 중시하게 되고 결국 참여자는 지역주민이면서도 제한적인 범위를 지니게 될 것이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인 주변적 대표성 프로그램의 개발은 지역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하는 시너지 효과를 함께 거두게 될 것이다.

### 3. 재정 확충과 자립도 향상

탐라문화제 재정은 전적으로 제주도에 지원되는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다. 2003년 제42회에 집행된 예산을 보면 총예산 3억6,500만원 중에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1%에 달하고 있다. 협찬 등을 포함한 자체자금은 3.5%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는 극히 미비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탐라문화제가 무료입장인데다, 휘장사업도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협찬도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이다.

반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입장권 판매수입, 상가분양, 공연료, 휘장사업, 기타 수입 등 자체수입금은 734,897천원으로 총세입예산 1775,398천원의 41.4%를 차지하고 있어 탐라문화제에 비해 재정자립도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탐라문화제의 재정 확충 및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지역의 기업체 및 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메세나형 협찬방안을 도입하여 자체자금의 수입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탐라문화제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같이 다각적인 수익사업이 필요하지만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을 활용한 협찬 및 홍보비 지원 등의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제주지역의 기업구조가 중소기업형으로 협찬을 유치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규모면에서도 적지만 탐라문화제가 타 지역축제와의 차별화를 이루고 성공적인 축제라는 평가를 얻는다면 현재의 상황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협찬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탐라문화제 집행기구가 지출하는 홍보비를 줄이는 성과와 동일한 성과가 나타나므로 결론적으로는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민간 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이 협찬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행정기관의 대폭적인 재정 지원 및 축제기금 조성이다.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탐라문화제에 대한 재정을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장 빠른 방안이 될 것이며,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같이 축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도입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관광도시인 제주도는 축제를 활용한 문화관광상품의 자원 개발 및 관광수입의 극대화를 지역 발전 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이천 도자기축제가 축제를 통해 147억원의 매출액을 거두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약 18억원의 축제총예산으로 200억원이 넘는 지역경제효과를 거두는 사례를 보더라도 탐라문화제가 현재 3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는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선시킨다는 것은 많은 무리수가 따르므로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위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같이 축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도입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2003년에만 로또복권의 열풍으로 860억원의 복권판매수입을 거두었는데,<sup>45)</sup> 축제기금으로 일부를 적립하여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한 축제가 문화관광자원이라는 점에서 관광으로 소득을 얻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참여와 지원을 병행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부의 지역축제 재정지원에 있어서 지역특성화사업인 지역축제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역축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문화관광부를 통해 이원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광국(관광개발과)의 문화관광축제와 예술국(전통지역문화과)의 지역특성화사업인 지역축제육성이다.<sup>46)</sup>

하지만 2004년 재정지원 계획을 보면 문화관광축제는 육성축제 55백만원, 우수축제 95백만원, 최우수축제 160백만원인데 반하여, 지역특성화사업은 육성축제 15백만원, 우수축제 25백만원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탐라문화제와 같이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지원받는 지역축제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균형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5) 한라일보, 2004. 1. 8일자

46) 2004년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축제(37개)에 최우수축제 3개, 우수축제 9개, 육성축제 11개, 예비축제 14개를 선정하였으며, 지역특성화사업인 지역축제육성(17개)에 우수축제 8개, 육성축제 9개를 선정하였다.

## 제 6 장 논의 및 결론

### 제 1 절 논 의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제주도 탐라문화제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로 평가되면서도 성공적인 축제라는 평가를 얻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탐라문화제 집행위원회의 자체평가와 관람객의 만족 여부, 그리고 진행요원의 평가의견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첫째, 2003년도 제42회 탐라문화제의 주체기구인 탐라문화제집행위원회의 자체평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성공적인 지역축제의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요인들을 찾아내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2003년 탐라문화제의 자체평가를 정리하면 첫째는 주행사장으로 이용하는 제주시 신산공원과 보조행사장과의 연계성 부족, 둘째, 대외적인 홍보가 미흡, 셋째, 축제의 주제 및 컨셉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부재, 넷째, 축제의 안내 및 해설기능의 서비스 부족, 다섯째, 하드웨어적 기반시설의 미비 및 관람객 편의시설 부족, 여섯째, 매년 발굴되는 우수한 민속예술작품의 효율적 보존 방안 미흡, 일곱째, 예산상의 지원 부족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지역축제 중에서 축제조직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 성공적인 홍보전략, 대표적 프로그램의 개발, 재정 확보 및 재정자립도 등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찾아 성공적인 요인을 분석하였다. 모든 면에서 탐라문화제와 유사성을 지닌 축제를 찾는 것은 어렵고 개최배경이나 성격 등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외 지역축제 중에서 이천도자기축제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선정하였으며, 외국의 축제 중에서는 영국 에든버러 군악대축제와 프린지축제, 프랑스 아비뇽축제, 일본 하카다 기온야마카사를 선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을 분석한 결과 축제추진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양성, 축제조직의 탄력적 운영,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었다.

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나 상징행사를 개발, 육성함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부각시켜 축제의 문화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외부 관람객을 끌어들이 홍보의 극대화도 함께 거두고 있었다.

홍보 전략에 있어서도 다양한 외국어로 행사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급기관, 단체, 여행사에 배부하고, 현지설명회 개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망이나 외국 언론사 등을 이용한 홍보 전략의 다각화를 이루고 있었다.

재정 확보 및 재정자립도 향상은 입장수입, 기념품 및 지역상품의 판매수입, 휘장사업수입, 지역주민의 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재정의 상당 부분을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으며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행사잔여금을 축제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었다.

둘째, <연구문제 1>인 '탐라문화제를 관람한 방문객들은 탐라문화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축제진행에 참여한 진행요원들은 각각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탐라문화제집행위원회에서 제주관광대학에 의뢰한 방문객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방문객의 설문조사로 파악할 수 없는 축제 운영의 내부적이고 세부적인 면을 파악하기 위해 축제에 참여한 진행요원들의 의견을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우선 탐라문화제 방문객들의 만족도 조사결과, 축제정보 수집경로 및 접근 방법에 대한 유형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정보 수집경로로는 방송매체와 주위사람의 권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방송매체가 지닌 전파력의 파급효과를 알 수 있었으며 축제에 참가할 때 동행자와 함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결과에서 '지나다가 우연히'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탐라문화제가 대외적인 홍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접근방법을 묻는 교통수단으로는 방문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주도민은 자가용 이용자가 높게 나타나 주차공간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는 결과였다.



세부만족도 조사결과에서 탐라문화제를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인식하는 방문객이 많았으며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여부와 재방문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가 추천의사 및 재방문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 지역축제와의 차별화 정도, 전체 프로그램 내용 및 행사 운영, 축제테마와 프로그램의 연관성, 주 무대와 야외행사장의 시설, 관람객 관람 동선의 원활성, 관람객 편의시설, 주차 공간 및 주차관리, 행사장 접근의 용이성, 기념품 가격 및 다양성, 행사 안내 및 홍보의 신속성, 음식가격 및 서비스 수준, 행사장 분산, 행사운영요원의 서비스 등 설문조사의 대부분 항목에서 만족도는 '보통이다'에 응답한 방문객이 가장 많았으며,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탐라문화제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방문객의 의향을 추정할 수 있는 탐라문화제의 연상 이미지에서 '흥겹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향후 강화해야 할 프로그램으로 '전통적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다.

탐라문화제에 대한 방문객의 만족도를 종합할 때 긍정적인 평가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방문객들은 탐라문화제를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탐라문화제를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와 재방문의 의사가 있음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탐라문화제의 연상 이미지에서 '흥겹다'의 응답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결과는 탐라문화제가 향후 문제점들을 보완할 경우 성공적인 지역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방문객들의 설문조사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는 축제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진행요원들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탐라문화제는 전통문화축제라는 성격으로 인해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선입감과 달리 상당히 흥겹고 제주도만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많아 타 지역축제와의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있으나 이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의 문제점으로 제주도 전역을 행사장으로 활용하면서도 제주시지역에 편중되는 홍보시설, 외국어 행사안내서의 미비, 행사안내요원의 체계적인 사전 교육 미흡, 주행사장의 보조행사장의 연계성 미흡, 관람객 편의시설의 미흡, 조명과 음향 그리고 출연진의 대기실 등 특설무대의 부대시설 시스템의 운영 미흡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검토 및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셋째, <연구문제 2>인 '탐라문화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종합할 때 종합적인 평가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탐라문화제집행위원회의 2003년 제42회 자체평가와 <연구문제 1>에서 다루어진 탐라문화제 방문객의 만족도, 진행요원들의 인터뷰 의견 등 다양한 평가들을 바탕으로 탐라문화제가 향후 특성화를 이루어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평가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첫째, 축제조직의 구조적인 효율성 제고를 들 수 있다. 둘째, 홍보 강화 및 대표 프로그램 개발이다. 셋째는 탐라문화제가 행정기관의 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 확충 및 자립도 향상 방안이다

## 제 2 절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의 연구문제들에 대해 답하면서, 지역축제로서 탐라문화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였으며, 탐라문화제가 지닌 문제점을 바탕으로 국내외 지역축제의 성공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실제 탐라문화제 방문객의 만족도와 진행요원들의 평가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탐라문화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특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주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에는 1962년부터 시작된 탐라문화제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제주도 전역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어 규모 면에서도 가장 큰,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축제이다. 초창기의 전국적인 명성과는 달리 90년대 이후 지역축제가 양산되면서 타 지역축제와의 경쟁력이 떨어져 비판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2000년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2001년에는 탐라문화제라는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고, 주행사장 이전, 테마형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고 있으나, 성공적인 지역축제로서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주만의 독창적인 문화적 특성을 축제에 융해시키고, 제주지역에 맞는 다각적인 특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탐라문화제가 향후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특성화 방안으로 축제 조직의 구조적 효율성 제고, 홍보 강화 및 대표 프로그램 개발, 재정 확충 및 재정 자립도 향상으로 집약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 조직의 구조적 효율성 제고는 탐라문화제 집행위원회의 참여기관 확대 및 실질적인 지원체제 구축, 축제의 모든 실무를 전담하는 실무집행기구의 전문적인 인력 확보,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진행요원의 안정적인 확보,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둘째, 홍보 강화 및 대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는, 탐라문화제의 차별화를 적극 부각시키는 다양하고 공격적인 홍보 전략의 강화 방안으로 제주지역의 기업체 및 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메세나형 협찬 도입, 외국어 어권별 세부프로그램 안내서를 겸한 통합홍보 리플렛을 비롯한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배부, 주한 외국대사관과 한국관광공사 등 외국에 축제를 알릴 수 있는 다각적인 채널 이용, 프로그램을 활용한 간접적인 홍보 효과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탐라문화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상징 프로그램 개발방안으로는 탐라국의 역사적 소재 등 탐라문화제의 테마를 대규모의 퍼레이드화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주변적 대표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재정 확충과 자립도 향상은, 제주지역의 기업체 및 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메세나형 협찬방안을 도입하여 자체자금의 수입을 극대화하고, 행정기관의 대폭적인 재정 지원 및 축제기금 조성, 탐라문화제와 같은 지역특성화사업인 지역축제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제도개선을 제시하였다. 특히 축제기금의 조성을 위해 제주도가 거둬들이는 복권판매수입을 축제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탐라문화제는 축제추진조직의 구조적 효율성 제고, 홍보 강화, 대표 프로그램 개발, 재정 확충 및 재정자립도 향상 등이 상호 연계성을 바탕으로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지역축제로서의 특성화를 이룰 것이다.

### 제 3 절 연구의 제한 및 제언들

본 연구는 탐라문화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국내외 지역축제와의 유사점을 비교, 분석하여 성공적인 축제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탐라문화제가 향후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탐라문화제의 특성화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요인들이 있었다.

첫째, 탐라문화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얻기 위해 탐라문화제 초창기부터의 언론보도와 평가서들을 수집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자료들의 수집에 한계가 있었으며, 수집된 자료의 시대적·환경적 요인이 현재의 탐라문화제가 처한 시대적·환경적 요인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축제조직, 홍보전략,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재정 상황 등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최근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었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역대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층적이고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및 다양한 특성화 방안이 도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탐라문화제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만으로는 문제점을 분석해내는데 한계가 있어 탐라문화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진행요원들과의 인터뷰에 의한 평가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하는데 성과를 보였지만, 방문객의 설문조사가 제주시와 서귀포지역에서만 이루어져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지역의 행사장 방문객을 비롯하여 부대행사가 열린 행사장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는 분석할 수가 없었다. 설문대상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개별적이며 심층적인 인터뷰가 병행되었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지이므로 축제가 지닌 다양한 기능과 효과적인 면에서 제주도에 맞는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연계한 특성화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 위해 외부관광객의 응답자 수를 확대하고 심층적인 만족도가 조사되어야 했다. 탐라문화제가 아직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지 못하여 많은 외부관광객의 유입이 저조한 원인도 있지만 탐라문화제를 통한 외부관광객의 유인효과, 지역 경제에의 파급효과 등도 병행하여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탐라문화제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역대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이고 다양한 분석으로 근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제주도 전역을 행사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이며 심층적인 인터뷰가 병행되는 방문객의 만족도 조사와 국제적인 관광지에 맞는 축제를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등이 함께 연구되어 성공적인 탐라문화제의 특성화 방안들이 도출되었으면 한다.

이와 같은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된다면 제주만의 독창적이고 발전적인 탐라문화제의 특성화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명자, 「세시풍속의 기능과 그 변화」, 「민속연구」 제2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
- 김병철, "강원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1998.
-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5.
- 김철원·이석호,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2002.
- 김춘식, "국제적인 창작공연의 알찬 축제-아비농축제", 월간 「문화도시 문화복지」  
Vol 71,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9
- 김춘식·남치호, 「세계 축제경영」, 김영사, 2002.
- 김혜옥, "지역축제의 참여자와 만족도", 「Arts Management Forum」 Vol. 1, No. 1,  
한국예술경영연구학회, 2001.
- 문화관광부, "한국의 지역축제", 2004.
- 문화체육부, 「한국의 지역축제」, 1996.
- 서정용, "제41회 탐라문화제 대회사", 한국예총제주도지회, 2002.
- 송정일,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 \_\_\_\_\_, 「이벤트 플래닝」, 백산출판사, 2001.
- 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3 조사연구", 2003,
- 양중해, 「제주문화예술백서」, 한국예총제주도지회, 1998,
- 이강욱,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 효율화 방안", 한국관광연구원, 1998.
- 이원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축제 운영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 이장주, "지역축제의 이미지 측정척도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1997,
-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이천도자기축제 성공사례 강의 참고자료", 2002.
- 이천시, "제17회 이천도자기축제 평가 보고서", 2003,

임재해,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0,  
 장연옥, "영국 에딘버러페스티벌", 월간 「문화예술」 Vol 21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7  
 장주근, "향토축제의 현대적 의의, 향토축제의 새로운 검증", 경희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82,  
 정인수, "제40회 한라문화제의 성과와 발전방향", 2001 제주지역문화예술세미나, 한  
 국예총제주도지회, 2001,  
 \_\_\_\_\_, "탐라문화제의 발전과제", 제주문화예술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한국예총제주도지회, 2002,  
 제민일보, 2002. 10. 10  
 제주도, 「2004 문화예술현황」, 2004,  
 제주일보, 2002. 10. 15  
 최관, 「일본문화의 이해」, 학문사, 1999,  
 탐라문화제집행위원회, 「제42회 탐라문화제 세부추진계획」, 200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의 축제」, 1987  
 한라일보, 2001. 10. 14  
 \_\_\_\_\_, 2003. 10. 9.  
 \_\_\_\_\_, 2004. 1. 8

## 2. 외국 문헌

Gets, D.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Van Nostrand Reinhold Co. Ltd. 1991,

Hughes, H. L. "Urban Tourism and the Performing Arts" in *Quality Management in Urban Tourism*, Wiley, Toronto, 1997,

## 3. 기타

아비뇽페스티벌 조직위원회(<http://www.festival-avignon.com>)

에딘버러국제페스티벌, 주한영국관광청(<http://www.visitbritain.or.kr>)

재팬피알닷컴(<http://www.japanpr.com>) 후쿠오카현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http://www.ceramic.or.kr>),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4 (<http://www.maskdance.com>)



## 표 목 차

〈표 1〉 제42회 탐라문화제 주요 프로그램 .....	12
〈표 2〉 2004년도 시·도별 축제 개최 현황 .....	19
〈표 3〉 시대별 지역축제 증가 분포 .....	20
〈표 4〉 개최월별 지역축제의 분포 .....	20
〈표 5〉 이천도자기축제 개최현황 .....	22
〈표 6〉 이천도자기축제 주요행사 .....	24
〈표 7〉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현황 .....	26
〈표 8〉 공동평가항목 비율 .....	45
〈표 9〉 탐라문화제 정보수집경로 .....	46
〈표 10〉 행사장 접근 교통수단 .....	47
〈표 11〉 제주 대표축제로서의 탐라문화제 인식 .....	48
〈표 12〉 타 축제와의 차별화 정도 .....	48
〈표 13〉 탐라문화제의 가장 관심있는 행사 .....	49
〈표 14〉 탐라문화제 행사 중 가장 즐거운 행사 .....	50
〈표 15〉 탐라문화제를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 여부 .....	50
〈표 16〉 탐라문화제에 재방문 의사 여부 .....	51
〈표 17〉 탐라문화제 전체 프로그램 내용 및 행사 운영 만족도 .....	51
〈표 18〉 축제테마와 프로그램 연관성 만족도 .....	52
〈표 19〉 주무대와 야외행사장 시설 만족도 .....	53
〈표 20〉 관람객 관람 동선의 원활성 만족도 .....	54
〈표 21〉 관람객의 편의시설 만족도 .....	55

〈표 22〉 행사장의 주차 공간 및 주차관리 만족도 .....	56
〈표 23〉 행사장 접근의 용이성 만족도 .....	56
〈표 24〉 행사장내 기념품 가격 만족도 .....	57
〈표 25〉 행사장내 기념품 다양성 만족도 .....	58
〈표 26〉 행사안내 및 홍보의 신속성 만족도 .....	58
〈표 27〉 음식가격 및 서비스 수준 만족도 .....	59
〈표 28〉 행사장 분산으로 인한 만족도 .....	60
〈표 29〉 행사장 운영요원들의 서비스 만족도 .....	60
〈표 30〉 탐라문화제 연상 이미지 .....	61
〈표 31〉 향후 강화해야 할 프로그램 .....	62
〈표 32〉 향후 탐라문화제에 축제 참여의 중심 .....	63

## 그 립 목 차

〈그림 1〉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조직 .....	23
〈그림 2〉 200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조직체계 .....	27

부록: 설문 양식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부탁을 드리게 된 이 설문지는 제42회 탐라문화제 집행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제주의 대표적 전통축제인 탐라문화제의 지속적 발전을 실현키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한 의견은 절대로 공개되지 않으며, 단지 평가 자료로만 이용되오니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끼신 대로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E-mail이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 10월

제주관광대학 관광컨벤션산업과

연락처 : 064-740-8853

☞ 해당되는 ( )에 ○표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3. 귀하의 거주지는?

-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③ 북제주군 ④ 남제주군 ⑤ 타 지역( )

4. 탐라문화제는 어떻게 알게되었습니까?

- ① 인터넷 ② 방송매체 ③ 신문, 잡지 ④ 여행사 ⑤ 주위사람  
⑥ 지나다가 우연히 ⑦ 기타 ( )

5. 탐라문화제 행사장 방문을 위하여 이용한 교통수단은?

- ① 자가용 ② 택시 ③ 관광버스 ④ 시내버스 ⑤ 기타 ( )

6. 탐라문화제를 제주의 대표 축제로 보는 정도는?

- ① 매우 높게 ② 높게 ③ 보통 ④ 낮게 ⑤ 매우 낮게

7. 탐라문화제와 타 축제의 차별화 정도는?

- ① 매우 높게 ② 높게 ③ 보통 ④ 낮게 ⑤ 매우 낮게

8. 탐라문화제 행사기간은 며칠이 적당한가?

- ① 1일 ② 2일 ③ 3일 ④ 4일 이상

9. 탐라문화제 프로그램 중 가장 관심 있는 행사는?

- ① 제주시 민속축제 ② 서귀포시 예술축제 ③ 북제주군 자연·생태탐방축제  
 ④ 남제주군 마을축제 ⑤ 예술축제, 자조·경연행사 ⑥ 기타 (        )

10. 탐라문화제 행사장 방문 중 가장 즐거운 것은 ?

- ① 공연관람 ② 먹거리 ③ 쇼핑 ④ 기타 (        )

11. 탐라문화제 관람을 타인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12. 탐라문화제에 재방문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13. 탐라문화제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귀하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o 전체 프로그램 내용 및 행사 운영	①	②	③	④	⑤
o 축제 테마와 프로그램의 연관성	①	②	③	④	⑤
o 주무대 및 야외행사장 시설	①	②	③	④	⑤
o 관람객 관람 동선의 원활성	①	②	③	④	⑤
o 관람객 편의시설 (화장실, 휴식공간, 공중전화, 급수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o 주차공간 및 주차관리	①	②	③	④	⑤
o 행사장 접근의 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o 행사장내 기념품의 가격	①	②	③	④	⑤
o 행사장내 기념품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o 행사 안내 및 홍보의 신속성	①	②	③	④	⑤
o 음식 가격과 서비스 수준	①	②	③	④	⑤
o 행사장 분산으로 인한 관람	①	②	③	④	⑤
o 행사장 운영 요원들의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14. “탐라문화제”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느낌은 ?

- ① 매우 흥겹다 ② 흥겹다 ③ 별 생각이 없다 ④ 지루하다 ⑤ 매우 지루하다.

15. 흥겨운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통적이면서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자.  
② 전통적이면서 공연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자.  
③ 현대적이면서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자.  
④ 현대적이면서 공연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자.  
⑤ 기타 ( )

16. 탐라문화제에 도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합니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젊은이들은 마을을 떠나 주로 제주시와 같은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강한 소속감이 없으며, 결국 탐라문화제와 같이 마을 중심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축제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 탐라문화제가 모든 제주도민이 참여하는 제주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기 위하여 축제 참여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기존 방식대로 관이 중심이 되어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현실적으로 마을주민이 자생적으로 축제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 또는 대학을 중심으로 마을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현실적으로 마을주민이 자생적으로 축제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타 ( )

17. 기타 탐라문화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사항은?

**(Abstract)**

**A Study of Ways to Improve the Success of Local Festivals**

— Focusing on the Tamna Cultural Festival of the Jeju Island —

Suk-bum Kim

Department of Art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Management

Danguk University

Adviser : Professor Chin-hyun Chung

It has been a unique task of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to produce a local culture that reflects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province and its true cultural identity. For this reason, the way of holding cultural activities like local festivals has been endorsed, in order to promote local cultures and foster their cultural competitiveness on a world stage.

In Korea, since the era of local self-government commenced in full swing in the 1990s, local festivals have been mass-produced in a competitive manner in order to improve the image of the provinces and to promote tourism with a view to advancing suitable local development enterprises dynamically.

Such a practice of mass-producing local festivals has raised a nagging question as to whether this practice has generated the desired effect of improving the image of the provinces and advancing the local economy in a satisfactory manner. So clarifying this matter is quite an intriguing object of study.

For Jeju Island, which has emerged as an international tourist resort, it is clearly an urgent task to develop successful local festivals that utilize the unique custom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s of the Island.

The Tamna Cultural Festival has been held since 1962, and its long tradition and large scale have made it a representative festival for Jeju Province. In the early stages it had attained a national acclaim, and yet it suffered reproach as it lost its competitive edge over other local festivals.

In the present study we have raised a question: What means should be taken to reshape the Tamna Cultural Festival as a successful local festival? Then, after analyzing the self-evaluation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Tamna Cultural Festival, a surve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visitors, and the opinions of operational personnel, we have proposed the following means for improving the unique qualities of the Tamna Cultural Festival:

First, in order to heighten the festival's structural efficiency, we propose that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Tamna Cultural Festival expand the number of participating institutions and establish a substantial support system; that it secur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for the business



executives who carry out the practical matters of the festival; procure a steady supply of expert personnel who will assist in the smooth operation of the festival; and initiat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Secondly, as to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would reinforce publicity and representation, we propose certain ways of reinforcing diverse and aggressive publicity strategi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Mecenat-style cooperative that would induce the participation, in the festival, of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in the Jeju region;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diverse publicity materials, including the unified publicity leaflets that would also serve as guides for detailed programs arranged according to foreign language regions; the utilization of diversified channels that could inform foreign countries of the festival (such as foreign embassies in Korea, the Korean Council for Tourism, etc.); and increasing indirect publicity effects through the utilization of relevant programs.

Also, as a means of developing symbolic programs that would represent the Tamna Cultural Festival, we propose a large-scale parade that would feature the themes of the Tamna Cultural Festival, such as the historical sagas of the Kingdom of Tamna, etc., and we further propose that ancillary representativ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simultaneously.

Thirdly, as to improving the festival's financial expansion and independence,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a Mecenat - style cooperative that would induce the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and

institutions in the Jeju region, in order to maximize the income of the regional fund; the large-scale financial support of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the building up of the festival fund; the reformation of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by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which assists with enterprises that enhanc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provinces like the Tamna Cultural Festival. We especially propose reserving for the festival fund the income that the Jeju Province would gain from the sale of rotaries made especially to contribute to the festival fund.

Summing up, we will be able to improve the unique qualities of the Tamna Cultural Festival as a successful local festival when we succeed in achieving the following in an integrated way: promoting the structural efficiency of the executive organization of the festival, strengthening publicity, developing representation programs, expanding the financial base and improving the festival's financial independence.